

제2257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고동진 "삼성, 미래 주도 혁신기업 될 것" 2



'더 뉴 그랜저' 사전계약 첫날부터 돌풍 10

코스피(5일) **2142.64** (+12.40P)
코스닥 **672.18** (+3.73P)
환율(달러당 원화) **1157.50** (-1.7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522%** (-0.028%p)

또 도진 금감원 '갑질'... "맛집 리스트·냉장고 준비하라"

금융회사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 검사역들이 피감기관 직원에게 주변맛집 리스트와 개인별 슬리퍼, 소형 냉장고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수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감기관에 슬리퍼 등도 요구
종합검사 부활 첫해부터 구태
"시대에 역행"... 또다시 구설

감기관 직원에게 주변맛집 리스트 작성과 개인별 슬리퍼 구비 등 검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요구를 했다.

해당 피감기관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외부기관 검사가 시작되면 검사실에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는데, 이번과 같은 이례적 요구

다. 윤석현 금감원장 취임일성이었던 종합검사가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부활했지만, 검사역의 갑질 논란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종합검사는 보복성·먼지 탈이식 검사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소속 팀장 K 씨와 수석검사역 P 씨, 선임검사역 P 씨, 검사역 K 씨 등 총 4명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내 금융기관 여신 운용 현황을 검사하면서 피

사항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검사역들은 가장 기본적인 편의 제공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불투명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사역들은 검사에 앞서 개인별 모니터와 프린터 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 피감기관 측은 기관 자체 비용으로 슬리퍼를 구매하고, 모니터와 프린터는 빌리는 방식으로 검사역들의 요구를 맞췄다.

▶8면에 계속 나경원 기자 contest@



코스피 6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4거래일째 올라 5일 214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0포인트(0.58%) 오른 2142.64로 거래를 마쳤다. 2168.01을 기록했던 5월 8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0원 내린 달러당 1157.5원으로 마감했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달러링커에서 달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4·6면 연합뉴스

M&A서 길 찾는 대기업...내년 100兆 시장 열린다

생존동력 발굴·사업재편 차원
자금력 갖춘 PEF 역할 확대

내년 인수·합병(M&A) 시장은 100조 원대의 '큰 장'이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생존 경쟁에 밀려 구조조정 대상이 될 1조~5조 원대 기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현대기아차·SK 등 생존 경쟁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은 사업 재편 차원에서 '빅딜'의 주인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의 삼성호(號)'는 '도전'과 '상생'을 내세워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카마겟돈(Car+Armageddon)' 시대를 맞은 정의선 현대기아차 총괄수석부회

진행 중인 주요 M&A (11월 5일 기준)

매각 대상	매도자	진행 상황	예상가격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산업은행 등	쇼트리스트 선정	1조5000억~2조 원
LG CNS 지분 35%	LG그룹	본입찰	1조 원
코웨이	웅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조8000억 원
SKC코오롱PI 지분 54%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본입찰	7000억 원
KDB생명	산업은행	투자설명서(M) 배포	2000억~8000억 원
웅진에너지	서울화생법원	매각주권사 선정	청산가치 800억~1000억 원
KG동부제철 충남당진 전기	KG동부제철	입찰제안서 접수	-

장은 '속도'에 더해 방향과 힘을 모두 갖춘 디테일을 더 단단히 할 M&A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사업 확장 고비 때마다 결정적 역할을 한 M&A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5일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거래자문(CF)

리더는 "여전히 불투명한 거시경제 환경과 정부 정책 이슈(지배구조 개편) 등은 내년 기업들을 사업 재편의 장으로 내몰 것"이라며 "적잖은 기업들이 현금 확보 차원과 '선택과 집중'을 위해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면에 계속 김나은 기자 better68@

직원 있는 자영업자 1년 새 11.6만명 '뚝'

통계청 '8월 비임금근로 조사'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나홀로 사장' 10만 명 늘어

8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29만6000명)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관련기사 3면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비임금근로

자는 679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만2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늘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각각 11만6000명, 4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연령별로 40대에서 8만1000명,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4만3000명, 3만1000명 줄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8000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산업은행이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4차산업혁명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KDB산업은행이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KDB 넥스트라운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제2의 벤처신화를 써 갑니다
- KDB 글로벌챌린저스 200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 KDB 혁신성장지원 혁신성장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갑니다



내일의 산업은 믿음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초연결 시대, 새로운 경험 주는 혁신기업 될 것”

미래 기술 교류의 장 ‘삼성 AI 포럼 2019’

‘5G·AI 기술 융합’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전환점 강조
“삼성전자, 미래 주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승자 될 것”
디자인 공개한 2세대 폴더블폰 출시 시기는 즉답 피해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장 사장이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혁신의 선두에서 미래를 주도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고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R&D 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서 “5G와 AI는 기술 융합과 혁신의 근간이 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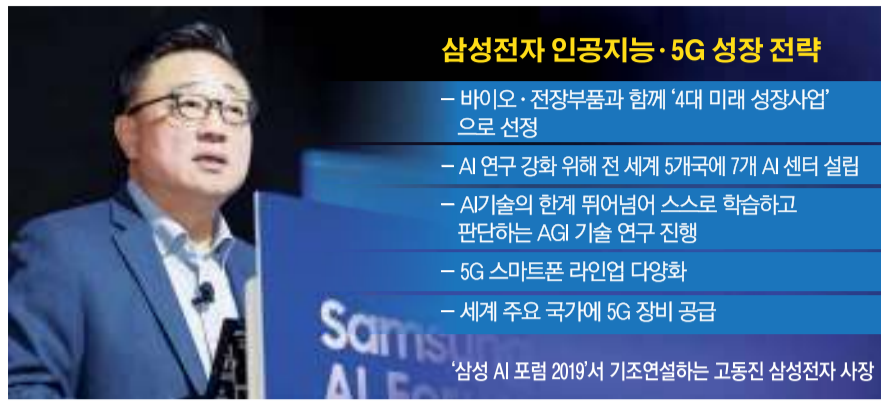
4일부터 이틀간 열린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석학들을 초청해 최

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AI 전문가, 교수, 학생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고 사장은 “5G와 AI,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본격화된 초연결 시대에는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5G 시대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삼성전자 인공지능·5G 성장 전략

- 바이오·전장부품과 함께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
- AI 연구 강화 위해 전 세계 5개국에 7개 AI 센터 설립
- AI기술의 한계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GI 기술 연구 진행
- 5G 스마트폰 라인업 다양화
- 세계 주요 국가에 5G 장비 공급

삼성 AI 포럼 2019서 기조연설하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고 사장은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왔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AI, 5G를 바이오, 전장부품과 함께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했

다. AI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5개국에 7개의 AI 센터를 설립했다.

고 사장은 “기존 AI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GI 기술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AGI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된다면 획기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고 사장은 이날 합작개발생산(JDM

)과 관련해 “(당사가 품질, 부품사 선정에서) 당연히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JDM은 주문자와 하청협력업체가 신제품이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폴더블폰 2세대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고 사장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화에 대한) 입장을 보고 공개할 시기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SDC(삼성개발자컨퍼런스) 2019에서 과거의 피쳐폰과 같은 조개껍데기(클램셸)처럼 여닫는 폴더블폰 2세대 디자인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라인업을 재편해 선보인 A 시리즈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목표한 바는 안 됐지만, (앞으로도) 더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내년 전국 집값 0.8% 하락”... 건설경기 한파 더 거세진다

공급량 감소에 수요 쏠림 심화 수도권은 0.3% 떨어질 듯
분양 올해보다 3000가구 줄고, 건설 수주 6년 만에 최저

국내의 경기 하강과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0.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 경기는 6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김성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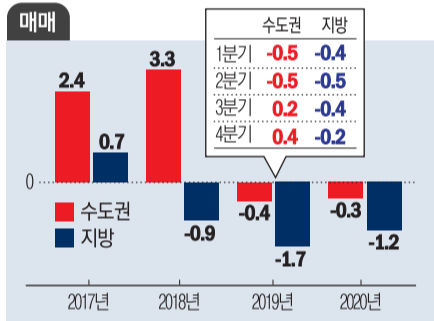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마·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경기 여건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잇단 규제로 집값을 누르고 있다.

집값 하락 폭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내년 집값이 수도권에선 0.3% 떨어지는 데 그치지만 지방에선 1.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 쏠리고 있지만 정부 규제도 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어서다.

반면 공급 과잉과 경기 약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에서는 집값 하락 폭이 클 것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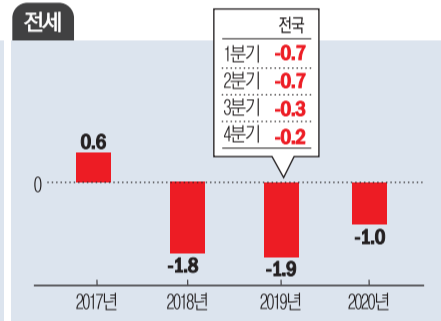
주택 가격 추이 (단위: %)



봤다.

그는 내년 전셋값은 올해보다 1.0%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1.9% 하락이 예상되는 올해보다는 하락 폭이 줄 것으로 점쳐졌다.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시장의 매력력이 커지는 데다, 3기 신도시 분양 대기 수요도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

※ 2019년 4분기와 2020년은 전망임 ※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2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 추산량(3만 가구)보다 3000가구가량 적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올해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화 기자 pbell@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옆가게에 치이고, 업지족에 치이고... '40대 사장님' 줄폐업

통계청 8월 비임금근로 조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올 들어 급감세다. 6월 11만6000명 감소, 7월 13만9000명 감소에 이어 8월에도 12만6000명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13만6000명 줄었는데, 감소분 중 8만1000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각각 4만3000명, 3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자영업자 감소는 곧 40대 자영업자 감소를 의미한다.

소분류별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 자영업자가 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올해 2%대로 둔화했지만,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1분기 17.6%, 2분기 17.9%, 3분기 19.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판매액이 정체된 상황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늘었다는 건 기존 오프라인쇼핑이 온라인쇼핑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미다. 추세상 점포소매점 형태의 소매업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무급가족 종사자

업종 과밀·온라인판매 공세에 도소매·건설업 자영업자 직격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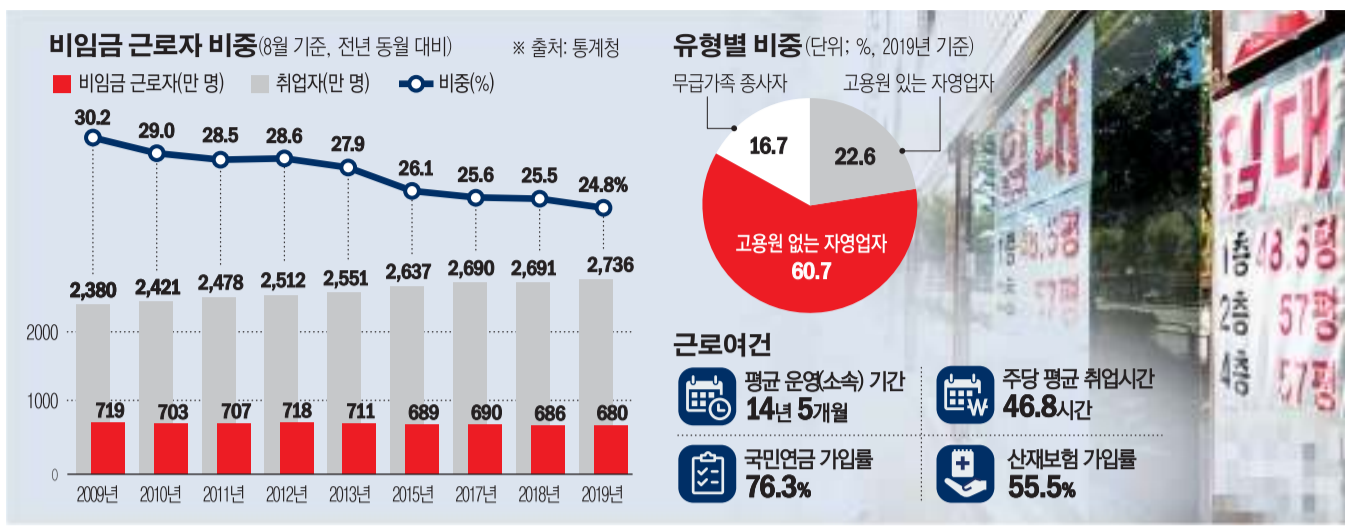
40대 비임금 근로자 13.6만명 ↓ 영세업자나 실업자 전략 가능성

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1%로 유럽연합(EU, 15.3%), 일본(10.3%), 미국(6.3%)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돈다. 자영업자 과밀은 도소매업에서 유독 두드러지는데, 이는 사업자금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70%는 사업자금이 5000만 원 미만이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 분석실장은 "편의점의 경우 창업자본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창업이 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통계에 대해 "비임금 근로자는 온라인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 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 등 구조적 둔화 요인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부진은 건설경기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집행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2분기(-1.8%)에 이어 3분기(-4.1%)에도 전 분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분이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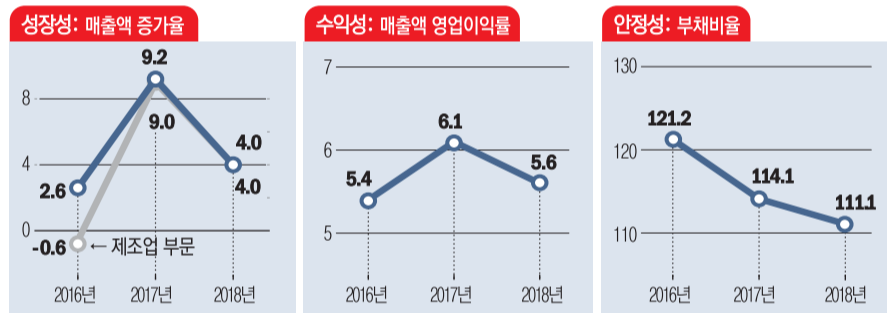
종사상지위로 흡수됐는지는 추적이 불가하다. 고용원(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했을 수도 있고,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했을 수도 있다. 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 4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가 함께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로 전환됐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됐든 사업 자체를 접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유입이 이어지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40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탈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15만8000명 늘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 6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16만9000명 증가한 게 단적인 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34만9000명 급증했

는데,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9만2000명, 9만9000명 늘었다. 20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6만3000명 늘었는데, 이는 고용시장 둔화와 일자리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전체 쉬었음 인구 중 쉬었음의 주된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자가 각각 5만8000명, 3만4000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단위: %, 2018년 기준 비금융 법인기업 69만2726곳 대상 조사) ※ 출처: 한국은행



기업들 매출증가율 '반토막' 3곳 중 1곳, 이자도 못 갚아

한은 '2018년 기업경영분석'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 매출 증가율은 반토막났고, 수익도 4년 만에 줄었다. 빛을 진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소위 한계기업은 3분의 1에 달했다. 반면 부채비율은 줄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69만2726개 법인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2017년(9.2%)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17년 9.0%→2018년 4.0%)과 비제조업(9.3%→4.0%) 모두 부진했다. 반도체·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 수출 증가폭 축소로 전자·영상·통신장비(20.4→3.4%)가 크게 감소했고, 발전플랜트 수주 감소와 디스플레이 업체 투자 감소 등에 기타기계·장비(15.4%→0.1%)가, 공사량 축소에 건설(10.3%→0.5%)이 각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무역액 감소로 도·소매(16.7%→8.4%)도 크게 둔화했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6%로 줄었다. 2014년 4.0%로 떨어진 후 첫 감소세다.

이는 1000원여치를 팔아 56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2017년엔 6.1%를 보이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제조업(7.6%→7.3%)과 비제조업(4.9%→4.3%) 모두 감소했다. 석유정제·코크스(6.3%→3.0%)은 정체마진 하락이, 자동차(2.9%→1.9%)는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경쟁 심화가, 전기가스업(5.2%→1.9%)은 수입연료가격 상승이, 도·소매(2.8%→2.6%)는 경쟁 심화에 따른 유통마진 감소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7.2%에서 3.3%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5.6%에서 4.4%로 각각 줄었다.

이자보상비율은 470.9%로 전년(537.4%)보다 떨어졌다. 이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상승한 때문이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은 35.2%로 전년(32.3%) 대비 급증했다. 이는 한은이 이자비용 제0(0)인 기업을 제외하고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3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조사 대상 기업은 36만2856개 업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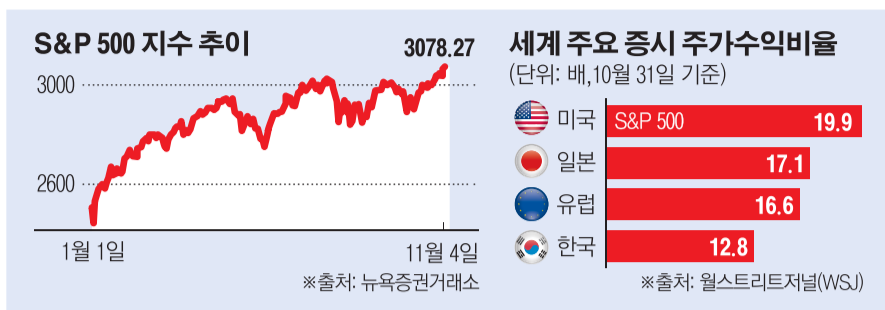
반면 매출원가(77.0%→77.2%)와 판매관리비(16.9%→17.1%)는 상승했다. 인건비와 노무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대표적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111.1%를 기록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美증시 훨훨 나는데...韓증시 주요국 상승률에 못미쳐

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
미중 무역합의 낙관론에 탄력
S&P500 주가수익비율 20배
한국은 12.8배, 美·일에 뒤져



미국 뉴욕증시가 미중 무역전쟁과 전 세계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상승률은 미국 증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4일(현지시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2만 7462.11로, S&P500지수는 0.37% 오른 3078.27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

닥지수는 0.56% 오른 8433.20으로 장을 마쳤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 7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증시는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했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주말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

중 무역전쟁 종전의 첫 단추가 드디어 꿰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주목할 건 올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도 미국 증시만 유독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 증시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우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8%, S&P500지수는 23% 각각 뛰었고 나스닥지수는 상승폭이 27%에 달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동조화하기보다는 각

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 다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다른 주요국 증시도 올해 오르는 했지만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MSCI미국지수는 올해 상승폭이 23%로 S&P500지수와 같았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MSCI지수(MSCI AC World ex USA)'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3% 오르는 데 그쳤다. MSCI 집계를 기준으로 유럽은 15%, 중국은 10%, 신흥시장은 9% 각각 상승했다. 5일 코스피지수는 2142.64로 5월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률은 10% 정도다.

뉴욕증시는 올해 가파른 상승세에 다른 나라 증시보다 고평가된 것이나, 불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기대를 걸고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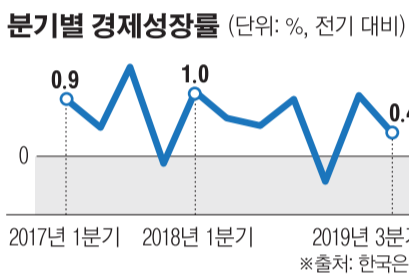
WSJ는 전했다.

지난달 말 기준 S&P500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은 평균 19.9배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증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PE는 평균 12.8배, 유럽은 16.6배, 일본은 17.1배로 모두 미국에 못 미친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식이 당분간 글로벌 자산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서 군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프라이빗웰스매니지먼트의 실비아아르다나 매니징 디렉터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여전히 '비중 확대(overweight)'라고 했다.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견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 성장 사수”...산업부 내년 투자금 당겨쓴다

공기업 예산 1.5조 연내 집행
당정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년에 쓸 돈 1조5000억 원을 올해 안에 풀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GDP)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년도 투자 금액까지 당겨 경기를 살려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관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공직기강 확립, 공공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송배전 설비 및 정보통신기술(ICT) 확충 등 올해 투자하기로 한 22

조 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등 구매와 관련해서도 올해 계획된 14조8000억 원을 연내 100% 이행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이 산업부와 합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에도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투자·소비 이행 상황과 복무 기강 확

립, 안전사고 대비, 적극 행정 정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계획 중 일부를 올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내년도 투자계획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올해로 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몸부림 일부다.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금액까지 올해로 당겨 어떻게든 2%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려는 노력이 쉼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남은 두 달간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소중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생선회 가격 13년 만에 최저 최근 광어 등 수산물 양식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선회 소비자가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횡감용 생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173개 신산업으로 확대

규제 간소화·자금지원 일몰연장

세계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

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AI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 등도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화시설, 생활체육 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환율 급락에 매수개입...외환보유 4060억 달러 ‘사상최고’

외환보유액이 40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폭도 30억 달러에 달해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강세)하면서 이번엔 달러 매수개입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가증권 투자는 줄어든 반면, 단기성 자금인 예대금이 급증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외환보

유액은 406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올 1월 기록한 4055억1000만 달러였다. 전월 대비 증가폭도 30억 달러(0.7%)에 달해 지난해 1월 64억9000만 달러(1.7%)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매입하고 원화를 풀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어한 셈이다.

실제 10월 말 원·달러 환율은 1163.4원으로 전월 말(1196.2원)보다 32.8원(2.7%) 급락했다. 10월 평균 기준으로도 1184.13원을 기록해 전달(1197.55원) 대비 13.42원(1.1%) 떨어졌다. 이는 각각 6월(36.2원, 3.0% 하락)과 작년 1월(19.08원, 1.8%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달러화 하락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해양미생물 이용해 수소 만든다

태안 ‘수소 실증 플랜트’ 구축... 수소차 2200대 규모

충남 태안에서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산업부생가스(일산화탄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실증에 들어간다. 상용화 수준까지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된 것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첫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연간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완공하고 6일 충남 태안에 있는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는 해수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적용한 설비다.

이 기술은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대기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0년부터 파푸아뉴기니 인근 심해에서 발견한 해양미생물이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규명하고 생산성이 100배 이상 높은 개량종(NA1)을 개발했다. 이후 2017년에는 파일럿 플랜트(6kg/일)를 구축해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속 운전을 통해 플랜트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는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된 첫 사례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내 지역 챙겨달라”...의원들, 총선 앞두고 ‘예산 쟁탈전’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
예결특위 질의 통해 민원 제기
관료 호출해 예산편성 압박도

“제가 매년 질의할 때마다 지역구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배려를 받지 못한 지방중소도시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에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사를 지역구 민원 해결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치권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래 의무인 예산 심의보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이 사업은 위 의원의 지역구인 서귀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질문’의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상의 ‘지역 민원’인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비타당성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허들을 조금 높여 줘서 면제 범위를 확대해 준다든지 등 해서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유사한 성격이다. 전체 공기업에 대상으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돼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지역구 챙기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대구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질의에서 지역구 연관 사업인 물산업융합성능시험센터 사업비 확정을 요구했다. 인천 연수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또한 지역구 인근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예산 민원은 비단 예결특

위 회의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산 시즌에 국회를 찾은 정부 관료는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 일쑤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조차 각종 민원과 압박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지역구와 관련이 깊은 기술사업을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포함하도록 담당 관료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예산 로비는 담당 상임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에도 이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경우 정부 고위 관료에게 지역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를 잠시 정회시키기도 했다. 관료 출신인 한 야당 국회의원도 기재부 예산실장을 국회로 호출해 지역구를 통과하는 철도예산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예산 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타다 기소, 문의 왔으나 보고는 없어”

청와대 ‘모호한 화법’ 구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방침을 검찰로부터 사전 보고받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측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해 문의를 받았다. 정책실이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단호함과는 다소 달라진 어조다.

청와대는 다만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 상황을 전했다는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1~2개월 늦추면 어떨까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지난달 말 TV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질문받은 뒤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중소벤처기업 육성 논의 (은성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지도부 인적쇄신” 목소리 커진 한국당

“중진 용퇴·원내대표 교체해야
패트 수사, 지도부가 희생물”
총체적 위기에 분위기 뒤숭숭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외부 인재 영입 비판, 당 지지율 하락 등 총체적 위기에 빠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책임지고 중진의원 용퇴, 원내대표 교체 등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용퇴하든지 수도권 협지에서 출마해야 한다”며 “모든 현역 의원은 출마 지역과 공천 여부 등 모든 득권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와 전·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며 “당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3선 이상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졌다면 대인호변(큰

사람은 호랑이와 같이 변한다는 뜻)의 자세로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통합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자신의 득권권을 버리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도 당내에서 거론된다. 일부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유임에 반대 뜻을 표명하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로, 절차에 따라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순리”라며 “(당내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를 다시 선출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의원 절반의 정치생명이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무대책임 당 지도부를 개탄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희생하는 자세로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의원들은 해방시켜라”고 촉구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OS

필승코리아 펀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 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537호 (2019.09.03 ~ 2020.09.02)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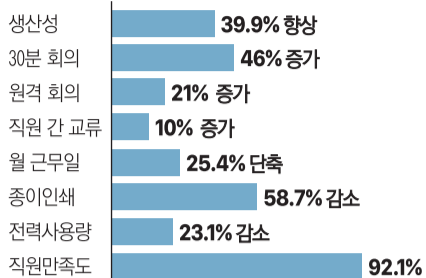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MS '週4일제' 실험해보니... 생산성 40% 늘었다

日법인 '워크 라이프 챌린지' 도입 한 달 만에 비용·효율성 극적 향상 뉴질랜드 기업도 도전해 성과 올려

MS 일본법인의 '주 4일 근무제' 실험 성과
※실험 기간: 2019년 8월 한 달간 / 비교 대상: 전년 동기



1주일에 4일만 근무하면 어떨까. 고용주와 종업원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주 4일 근무'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법인은 8월 '주 4일 근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본 결과, 생산성이 극적으로 향상됐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MS 일본 법인은 지난 달 말 '워크 라이프 초이스 챌린지(Work Life Choice Challenge)'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직원 2300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실험 기간의 생산성이 40% 가까이 향상된 것.

MS는 종업원 1인당 매출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했다. 8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생산성이 39.9%나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원격 회의가 늘어난 것 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MS는 분석했다.

주 4일 근무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실험 기간의 근무 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4% 줄었고, 그에 따라 전력 사용량은 23.1%, 종이 인쇄 매수는 58.7% 각각 감소했다.

MS는 실험 후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의 92.1%가 '선호한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도 높았다.

MS는 단순히 금요일을 휴일로 추가한 것은 물론 직업과 인생, 사회 등 3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관련 비용

과 가족여행 비용, 사회공헌 활동비 등을 지원했다.

MS 일본 법인은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장려하고자 겨울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 4일 근무제는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 여직원이 장시간 근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최고 부자인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996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근로 문화를 의미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신약회사인 퍼페추얼가디언이 2개월간 주 4일제를 시험한 결과 생산성이 20%가량 향상되고 직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등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괴짜 억만장자' 사업가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설립자는 "기술적 진보가 유연한 근무제 도입을 전적으로 가능케 한다"며 주 3일이나 4일 근무제가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3일 또는 4일 쉬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며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에 투자하며, 세상을 탐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위워크 파문·사우디 냉대... 설욕 나선 손정의

비전펀드 잇단 투자 실패 구설에 스타트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위워크 파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냉대 등으로 '승부사' 명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손정의(사진)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설욕에 나섰다. 자신이 주도하는 '비전펀드'가 잇단 투자 실패로 구설에 오르자 신뢰 회복을 위해 스타트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팔을 걷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르면 6일 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차등결권 주식(Dual-class Share)'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지배구조 개선안은 소프트뱅크가 향후 투자할 기업들에 적용되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그동안 직관을 중시하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딜 메이커(Deal maker)'로 알려졌던 손 회장에게는 중대한 변화라고 FT는 풀이했다. 손 회장은 재빠른 의사결정이나 잘나

가는 기업을 고를 줄 아는 선견지명을 과시해왔으나 올해는 그런 능력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인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기업공개(IPO)를 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까지 약 34% 하락했다. 우버는 3분기에도 12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가까운 순손실을 냈다.

무엇보다 손 회장의 명성이 떨어뜨린 것은 우버와 더불어 올해 최대 IPO 기대주였던 사무실 공유 서비스업체 위워크의 몰락이다. 위워크는 연초만 해도 기업가치가 무려 470억 달러로 평가됐으나 이후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로 가치가 반 토막이 났고, 결국 IPO도 취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 회장은 사우디에서도 푸대접을 받았다. 사우디가 지난달 말 개최한 '사막의 다보스포럼'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포럼에서 청중석이 텅 빈 무대에 오른 것이다. 행사 때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던 손 회장으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워크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투자에서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과 우리나라의 쿠팡을 꼽았다.

디디추싱에는 비전펀드 출범 이후 가장 많은 118억 달러가 투입됐으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올해 20억 달러의 신규 자금조달에 나섰다. 27억 달러를 투자한 쿠팡은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영업 손실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WSJ는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對中 관세 일부철회 검토

“美, 의류·가전·모니터 부문 양보... 中, 지적권 보호 강화 수용”

G2 무역협상 낙관론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일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9월 1일부터 의류와 가전제품, 모니터 등 1120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5%의 관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다. FT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일부 관세 철회로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중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한 후 부분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다만 9월 시행된 관세와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를 허용할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또 일부 매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중국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관세 철회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세 철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이론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 문제 책임자는 “양측은 이번 합의를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라면서 “미국은 관세 부분에서 양보하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더 수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칠레가 정국 불안의 이유로 개최를 취소하면서 새 장소 물색에 나섰다.

회담은 미국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개최지는 하와이, 알래스카, 아이오와가 거론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백악관에 올려퍼진 '아기상어'

95년 만에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들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축하연에서 흘러나온 해병대 군악대의 '아기 상어' 연주에 맞춰 신나게 울동을 하고 있다. 아기 상어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극심한 부진을 겪던 워싱턴 내셔널스의 중견수 헤라르도 파라가 이 노래를 자신의 등장 곡으로 바꾼 후 본인은 물론 팀까지 승승장구하면서 팀의 간판곡으로 떠올랐다.

95년 만에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들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축하연에서 흘러나온 해병대 군악대의 '아기 상어' 연주에 맞춰 신나게 울동을 하고 있다. 아기 상어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극심한 부진을 겪던 워싱턴 내셔널스의 중견수 헤라르도 파라가 이 노래를 자신의 등장 곡으로 바꾼 후 본인은 물론 팀까지 승승장구하면서 팀의 간판곡으로 떠올랐다.

페이스북, 창사 15년 만에 로고 변경

이미지 쇄신 차원... 왓츠앱·인스타그램에도 색상별 적용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새 로고를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모회사를 구분 짓기 위해 새 로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 동영상 공유 앱 '인스타그램'과 무료 메신저 앱 '왓츠앱' 등의 모회사가 페이스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로고는 영문 대문자 'FACEBOOK'에다 글자 색상을 파랑, 자주, 빨강, 오렌지, 초록으로 다양화했다. 파랑은 페이스북, 초록은 왓츠앱, 자주·빨강·오렌지는 인스타그램을 상징한다.

안토니오 루치오 페이스북 최고마케팅

책임자(CMO)는 새 로고 제작에 대해 “페이스북이 인기 앱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앱의 모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계정을 통해 “15년 전 페이스북을 시작할 때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클러스 등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앱과 해당 기술들이 페이스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 로고 제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새 로고는 같은 이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모회사를 구분



페이스북이 4일 공개한 새 로고. AFP연합뉴스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스캔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새 로고가 회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최근 단독점 조사로 위기에 몰렸고, 자체 개발 가상화폐인 '리브라' 프로젝트도 금융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

페이스북은 새 로고를 자사 제품과 홍보물에 사용할 계획이며,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모든 앱에도 사용한다.

김서영 기자 0jung2@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MAKE_금융거래를 더 간편하게 만들고
MORE_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MOST_가장 앞서나가는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

Liiv M,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 Liiv M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9-1793-1호(2019.10.25) | 광고물 유효기한 2020.04.30까지

<핵심성과지표>

국민銀, 불안전판매 실적 'KPI 평가'서 뺏다

영업문화 '고객 중심' 전환

KB국민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안전판매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한다. 수익성 지표에 치중된 평가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변경해 지점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불안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직원은 KPI 산정 순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감사에서 지점의 불안전판매가 적발되면 KPI가 대폭 삭감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DLS·

비윤리 행위 땀 지점장도 페널티

고위험 상품은 증권사서 판매

고객 자산 훼손·과당 경쟁 차단

신성장 분야서 먹거리 발굴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익 개선'

DLF 등 파생결합상품 논란으로 고객 자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상품위원회를 꾸려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현재도 차단하고 있지만, 지점 차원에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금의 KPI 지표가 주로 수익성 위주다 보니 직원들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 무



리한 경쟁을 하게 된다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허인 행장도 직원들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의견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윤리적 판매 행위가 적발된 지점의 장에게는 추가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를

전 지점에 공개함으로써 점차 수익에 치중된 영업 문화를 바꿔나간다는 의도다. 고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니라 증권사로 넘겨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판매 전략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대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수익 모델도 개선할 것임에

고했다. 이자 이익을 거두기 어려워진 금융사가 '비이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무리한 판매가 이뤄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자이익 대신 비이이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자 이익 축소로 은행의 상황은 어렵지만, 고객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며 "과당 경쟁을 촉발하는 KPI 산정 방식이 내년에는 크게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비이자 수익 확대는 경계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고객 중심의 영업으로 가기 위해선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우리銀, 대학생 홍보대사 2기 발대식
손태승(두 번째 줄 가운데)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스무살우리' 2기 발대식에서 임직원, 홍보대사 30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경력직, 연봉 1.5배+보너스 최대 1억 드려요” 토스의 파격 영입조건, 외면 받는 까닭

금융 인사이트

업계 소문난 높은 업무강도에 자율출퇴근·무제한 휴가 등 직원 복지정책도 매력 못 느껴

구직자, 3인터넷銀 도전 부담 “차라리 네이버파이낸셜로...”

“토스로 가는 (우리)직원들은 없읍니다.”

간편 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버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파격적인 인재 영입 조건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다. 토스는 경력 입사자에게 전 직장 연봉의 1.5배 수준의 연봉 보장, 입사 후 첫 월급일에 전 직장 연봉 수준의 보너스(1억 원 한도)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낸 토스가 금융 ICT 인력 확충을 위해 초강수를 내놓은 가운데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좋은 조건이지만 토스를 선택하는 경력직들이 많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토스의 업무 강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창업 7년 차를 맞이하는 토스는 업무 강도가 세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토스는 회사의 정체성을 철저한 성과주의로 압축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고를 비롯한 성과에 대한 해석이 자유롭다. 높은 연봉, 전 직원 법인가드 지급 (식대, 야근교통비 등 자유롭게 사용), 점심·저녁 식비 전액 지원 등 처우가 좋다. 올해 1월에는 직원 1인당 1억 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로 화끈한 복지정책에 대한 임팩트가 크지 않은 모양이다.

토스는 자율출퇴근제와 함께 무제한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휴가를 제공하는 건 무제한 업무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토스의 높은 업무 강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토스는 직원들에게 높은 보상을 하는 만큼,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높은 채용 문을 자랑한다.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

하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점도 구직자 입장에서 망설이게 되는 요소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경험한 업계 관계자는 “비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을 출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수많은 규제를 다 충족하면서 사업을 론칭하고, 운영을 다시 하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대기업과 기존 금융회사의 일자리 문이 넓어지는 점도 토스의 인재 영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달 1일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결제 관련 사업을 물적분할해 금융전문 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공식 출범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ICT 인력을 대규모로 끌어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 네이버가 주는 안정감과 복리후생은 단연 업계 최고로 손꼽힌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 ICT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상시채용의 13개 직종 가운데 8개가 금융·ICT와 관련된 업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부터 전산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우리은행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이라는 산업 자체가 안정감을 추구한다. ICT 인력이 워낙 귀한 데다 젊고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을 선택할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금융,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인수

내달까지 본계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이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단 대전시티즌을 인수한다.

하나금융그룹과 대전시청은 5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티즌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 대전시가 8월 하나금융그룹에 '대전시티즌 투자유치 제안서'를 건넨 이후 양측은 약 두 달 동안 투자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협상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규모, 관련 시설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본계약을 다음 달 말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대전시티즌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절차를 밟아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1998년부터 대한축구협회를 공식 후원해 왔고, 현재도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축구팀은 물론 K리그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또 도진 금감원 '갑질'

▶1면서 계속

이들 검사역은 “딱딱한 의자는 감사 업무를 진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받침이 있는 폭신한 의자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이어, 자신들의 음료를 보관하기 위한 소형 냉장고까지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피감기관 측은 감사역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임원 방에 있던 의자와 냉장고를 검사실로 옮겨 놔야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피감기관 관계자는 이밖에도 “감사역들이 직원들에게 좌석 배치를 바꾸라고 하는 등 감사와 상관없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를 나가더라도 주변 식당을 잘 모르니까 중식 해결 차원에서 맛집을 물어봤다”면서 “웃 걸이나 소형 냉장고는 있으면 좋겠다고만 말했지, 반드시 구비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딱딱하니 폭신한 의자가 있으면 갖다 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다른 사

람 의자로 바꿔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검사역이 가진 노트북은 화면이 작아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별 21인치 모니터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용 슬리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일 정도 감사를 한다. 이때 감사역들이 개인용 슬리퍼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피감기관에서 삼선 슬리퍼를 나눠는데, 이런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이라면 “감사원을 통해 확인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청했던 수준이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가서 요청하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는 절대 지시하지 않고, 감사 장소만 마련되면 그 외의 것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감사 환경도 피감기관 직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금감원이 요구했던 항목들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했다.

현대해상, 온 가족 실생활 위험 종합 보장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온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실생활 맞춤형 보험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14년 출시된 가정종합보험인 '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에 고객의 요구와 다변화되고 있는 생활 속 위험을 반영해 리뉴얼한 상품으로 주택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재산손해, 각종 비용손해,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보장까지 고려해 기존 상품 대비 가입 나이를 확대했다. 늘어난 가입 나이에 따라 노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골절) 및 상해수술 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관련 위험 보장도 강화했다. 주택 임시 거주비의 보장 기간을 기존 4일 이상에서 1월 이상으로 확대해(1~90일) 임시 거주 초기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가전제품 소비성향을 반영해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을 포함하는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을 담보한다. 여러 명의 가족 모두 피보험자로 설정해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피보험자 2인 이상 또는 소재지 2개 이상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해상 박재관 장기상품부장은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라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연 기자 sjy@

‘오픈뱅킹’ 출발부터 삐끗... 타행 예·적금 조회 ‘먹통’

‘집토끼’ 잡기 바쁜 은행들

금융권 ‘빅뱅’을 몰고 올 것이라 기대감을 안고 지난달 말 시범 운영에 들어간 오픈뱅킹이 첫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집토끼(고객)’를 뺏기지 않으려는 은행들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은행들, 합의 어기고 고객정보 ‘공공’ =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주요 은행 가운데 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의 앱에서 타행의 예·적금 정보가 조회되지 않고 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 결제망을 외부에 개방하는 제도다. 금융 앱 하나만 다운로드 하면 여러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예전처럼 은행 앱을 하나 하나 설치하지 않아도 A 은행 앱에 접속해 B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C 은행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은행권은 오픈뱅킹을 시행하기에 앞서 입출금 계좌뿐만 아니라 예·적금 계좌와 펀드계좌 정보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출금은 입출금 계좌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예·적금 계좌와 펀드 계좌는 잔액 조회만 되도록 했다.

오픈뱅킹 시행일 이후 주요 은행의 앱에서 타 은행의 입출금 계좌는 곧바로 조회된다. 하지만 예·적금은 특정 은행의 정보만 조회될 뿐 나머지 은행은 오류 메시지가 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출금 계좌를 제외

정보 공유 합의 하나하나

펀드 계좌 등 인증방식 제각각 자동정보 추출 못해 오류 발생 전문가 “은행 1곳만 서비스 가능 못 하는 것 아닌 안 한다는 의미”

API 방식 이체 오류

사고 계좌로 입금 취소 발생 땀 출금 계좌로 자동 환급 불가능 금융위 “미비점 보완해 나갈 것”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에 대한 규약이 없다”며 “예·적금 계좌 인증방식은 은행마다 다른데, 타행 계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방식이 달라 스크래핑(자동 정보 추출·제공)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은행이 예·적금 계좌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은행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얘기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끼리 가격경쟁만 하는 치킨게임으로 흐를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은행이 가진 고객과 정보만 내어주고 말지, 아니면 국내 은행이 새롭게 탈바꿈할 기회로 활용

할지는 얼마 후 판가를 날 것”이라며 “고객 중심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별세 이체오류 잡음 = 일부 은행에서는 이체 시 오류도 발생했다. 이체를 출금과 입금 거래로 구분한 오픈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는 출금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입금계좌로 돈을 넣는 과정을 하나로 본다. 만약, 입금계좌가 ‘사고 계좌’로 입금이 안 되는 상황이면 입금이 취소되고 그 돈이 원래 출금계좌로 자동으로 환급된다.

하지만 API 방식에서는 출금과 입금이 별도 과정이다. 입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래 은행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

고 출금 거래를 새롭게 정정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시스템을 4TB(테라바이트)에서 60TB로 증설하고,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FDS)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12월 정식 서비스까지 미비한 점들을 각 금융사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오픈뱅킹 가입하고 제 이름 등록해주세요” 직원들 옥죄는 ‘실적 압박’

“저희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뱅킹 가입하고 권유 직원에 제 이름 좀 올려주세요.”

회사원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개시일에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화 2통을 받았다.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지인의 부탁에 한 곳을 정해 가입했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은행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들이 디지털금융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사의 앱으로 오픈뱅킹 고

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야 유리하다는 판단에 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들에게 오픈

뱅킹 고객 확보를 지시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오픈뱅킹 가입 실적을 매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은행 중 일부는 오픈뱅킹을 신청할 때 권유 직원을 써넣는 메뉴를 두고 있다. 직원별 오픈뱅킹 가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뿐 아니라 예·적금, 펀드 등에 가입할 때도 권유 직원을 넣는 메뉴가 있다”며 “실적 압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권유 직원을 써넣는 것만도 압박”이라고 토로했다. 포털사

이트에 은행명과 오픈뱅킹을 검색하면 가입 방법을 설명한 뒤 직원 권유란에 직원번호, 영업점과 이름을 올려놓은 게시글도 보인다.

금융노조가 주요 은행 오픈뱅킹 영업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 시중은행은 150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KPI를 배정한 은행은 몇 군데 더 있었고 도입을 검토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상품판매 등에 활당을 쥐 영업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5년 계좌이동제 시행, 2016년 개인자산관리계좌(ISA) 통장 출시 때도는 행간 고객유지경쟁에 은행 직원들

은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되지 않은 시행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은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면서도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고객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앱이나 자신에게 맞는 특화된 상품 등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어 상품 개발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중국도 LCD 투자 축소... 대세 굳히는 OLED·QD

DSCC “中 내년 투자액 전망치 152억 달러”... 25% 하향 조정
LCD패널 가격 하락에 수익성 악화... 투자 취소·연기 잇따라
삼성·LG,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등 ‘기술 격차 벌리기’

우리나라를 밀어내고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을 장악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내년에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행보다. 이는 디스플레이 시장 판도가 빠르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삼성과 LG에는 희소식으로 풀이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시장조사업체 DSCC는 내년 중국 패널 업체 장비 투자액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기존 전망치 203억 달러에서 152억 달러로 약 25% 하향 조정했다.

DSCC에 따르면 샤프 광저우 10.5세대 공장은 생산능력을 월 9만 장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면양에 있는 HKC 8.6세대 공장은 월 15만 장에서 6만 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한에 건설 중인 BOE B17 10.5세대 LCD 라인도 투자가 6개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올해부터 감산에 돌입하는 공장도 있다. 추저우 HKC 8.6세대 LCD 라인도 올해 가동률을 20% 낮추기로 했다. 패널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업체들이 앞다투어 신규 투자 연기와 취소, 감산 등에 나서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10월 55인치 LCD TV 패널 장당 평균 가격은 98달러로 전달보다 6% 하락했다.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이다. 1년 전 가격(장당 154달러)과 비교하면 36%나 급락한 수준이다.

중국 업체들이 LCD 물량 공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였지만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면서 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 안에 LCD 시대는 저물고 OLED와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브라운관 → PDP → LCD

로 이어지던 계보가 OLED와 QD로 옮겨 가는 것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체가 선두고 있다.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QD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에 총 13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의 방향을 기존 LCD에서 ‘QD디스플레이’로 전환하고, ‘QD’를 기반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라인도 우선 초기 3만 장(8.5세대) 규모로 2021년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LED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9월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한상범 부회장에 이어 신입 대표에 오른 정호영 사장은 LCD TV 개발 조직을 통합하는 등 LCD 관련 조직을 축소했다. 이에 따른 자원은 전략 사업인 대형 OLED 및 중소형 P-OLED 사업 분야로 전환 배치한다.

또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대형 OLED와 관련 현재 고객사는 15곳이라며 향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객군이 확대되면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도 변화가 생겨 균형을 맞춰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LCD와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시장 확대를 위한 가격 전략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그룹, 중국서 미래차 기술 과시
현대차그룹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친환경 기술과 고급차 전략 강화에 나섰다. 기아차는 전기차 기반 SUV 쿠페 콘셉트카 ‘퓨처론(Futuron·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현대차는 포니 이미지를 담은 콘셉트카 ‘45’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제네시스 역시 본격적인 현지 진출을 앞두고 수소전기차 기반의 GV80 콘셉트카를 내놨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더 뉴 그랜저, 사전예약 첫날 ‘1만7294대’ 돌풍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가 사전예약 첫날인 4일에만 1만7294대 계약됐다.

이는 2016년 11월 출시된 6세대 그랜저가 보유하고 있던 역대 최대 첫날 사전계약 대수 1만5973대를 뛰어넘은 기록이다. 완전변경 모델이 아닌 부분변경 모델이 최대 사전계약 기록을 달성한 건 전례가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가 단 하루 만에 고객들로부터 폭발적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신차급으로 대폭 향상된 상품성으로 변화된 고객들

‘6세대’ 1만5973대 넘어
부분변경 모델로 최다 기록
현대차 대표 플래그십 입증

의 요구와 기대감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보석 모양 패턴을 사용해 헤드램프와 그릴을 통합한 뉴 그랜저의 독창적인 전면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실내 디자인을 인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대차 최초로 갖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기술’뿐 아니라 ‘후진 가이드 램프’,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첨단 편의사양도 고객의 주목을 끈 것으로 봤다.

△2.5가솔린 △3.3가솔린 △2.4하이브리드 △3.0LPI 등 총 네 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동시에 선보여 선택권을 넓힌 것 역시 인기요인으로 꼽혔다.

더 뉴 그랜저의 판매가격은 △2.5가솔린 3294만~4158만 원 △3.3가솔린 3578만~4399만 원 △2.4하이브리드 3669만~4539만 원 △3.0LPI 3328만~3766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LS전선, 초전도 케이블 세계 첫 상용화

홍덕~신갈 변전소 1km 설치
구리케이블의 5~10배 송전
송전 중 전기손실 거의 없어

LS전선이 한전과 함께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했다.

LS전선은 경기 용인시 홍덕 변전소와 신갈 변전소 사이 1km 구간에 초전도 케이블이 설치돼 5일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을 포함해 유럽과 일본, 미국의 5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의 전력을 보낼 수



LS전선 직원들이 제주도 초전도 센터에 설치된 초전도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LS전선

있다. 영하 196도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응용, 송전 중 손실되는 전기가 거의 없다.

또 변압기가 필요 없어 변전소 면적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변전소의 설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의 기피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변전소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초전도 케이블 1기닥으로 구리 케이블 10기닥을 대체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신도시를 짓는 경우 높이 3m 기둥의 전력구를 1m 정도의 관로로 대체, 토목 공사 비용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

초전도 케이블의 보급이 확산되어 생산 단가가 내려가면 기존 구리 케이블과의 비용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전도 케이블은 전력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존 전력구와 관로 등의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기존 구리 케이블을 초전도 케이블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전력량을 늘릴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불매’ 직격탄... 일본차, 10월 판매 58% 뚫

신규 등록대수 1977대 그쳐
벤츠, 첫 8000대 月판매 1위
최다판매 모델 ‘아우디 Q7 45’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10월에도 일본 수입차 브랜드 판매가 부진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는 수입차 중에서 처음으로 월 판매량 8000대를 넘겼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일본수입차브랜드 5사(토요타·렉서스·혼다·닛산·인피니티)의 10월 신규 등록대수가 197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한 수치다.

일본 수입차 판매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7월 2674대(17.2%↓)를 시작으로 8월 1398대(56.9%↓)를 기록하며 감소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1103대로 59.8% 줄었다.

브랜드별로는 렉서스가 456대를 판매하며 1년 전보다 77% 급감했다. 토요타(408대)와 닛산(139대)도 각각 69.6%, 65.7% 감소했고, 혼다(806대)는 8.4% 줄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0월에만 8025대를 판매하며 한국 수입차 역사상 월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다.

벤츠의 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고, 1~10월 누적 판매량도 6만2933대로 10.2% 늘었다.

판매량 2위 브랜드는 4122대를 판매한 BMW로 지난해보다 93.4% 증가했다.

인증 문제가 해결되며 출고를 재개한 아우디는 533% 늘어난 2210대를 판매했다. Q7 45 TFSI 콰트로(Quattro·사진)는 1394대 판매되며 10월 최대 판매 차에 올랐다. 지프(1361대)와 볼보(940대)가 각각 97.2%, 36.8%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10월 전체 수입차 신규 등록은 18만 9194대로 지난해 동기(21만7868대)보다 13.2% 감소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진, 지분상속 마무리...정석기업도 법정 비율대로

이명희 6.87%...세 자녀 4.59%씩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의 정석기업 지분 20.64%를 조 전 회

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4명에게 배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아울러 이남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조 전 회장이 지분 0.65%씩 보유했던 이들 기업의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0.22~0.23%를,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이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돼 각각 지난해 30일과 31일 공시된 바 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부르기만 하면 내 맘대로 되는 세상

집안 시스피커를 넘어 호텔, 오피스, 자동차 안까지

언제 어디서나, 200만이 선택한 기가지니.

GiGA Genie

〈진짜 상무〉 〈방 있는 상무〉 〈어쩌다 상무〉

‘진상·방상·어상’ 사정은 달라도 ‘눈치·코치·재치’ 필수

- 1 대기업 ‘별’이 지기 시작했다
- 2 나는 이렇게 대기업 ‘별’이 되었다
- 3 ‘진상’과 ‘방상’ 임원 전성시대
- 4 권오현이 말하는 초격차 임원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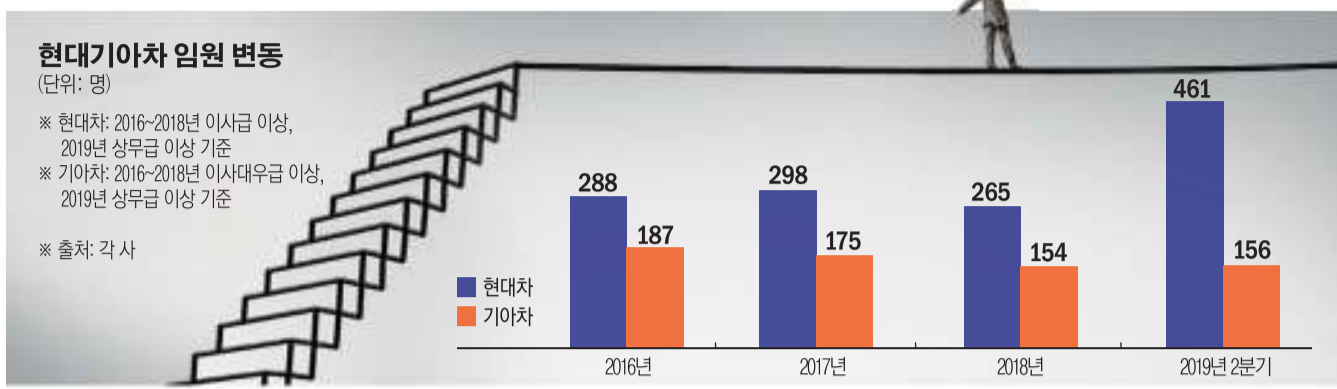
“주변에서 이제는 상무가 됐으니 상무답게 행동해야 한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일은 똑같고 직함만 무거워졌습니다.”

올해 들어 직급체계가 바뀐 현대차그룹의 한 상무는 바뀐 직함이 여전히 불편하다. 타이틀이 이사에서 상무로 바뀌었으니 언뜻 승진처럼 보이지만 직급에서 느끼는 부담감만 더 커졌다. 하는 일이나 연봉은 동일한데 책임질 일만 늘어난 분위기다.

예컨대 후임의 공(功)은 임원의 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임의 잘못은 분명 임원의 책임이다.

치열한 사내 정치싸움도 주요 기업 임원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때문에 ‘눈치 △코치 △재치’가 필수다.

빠른 ‘눈치’는 슬기로운 임원 생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후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적절한 ‘코치(coach)’도 필



수, 나아가 직원과 경영책임자 사이에서 재치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진상’과 ‘방상’의 전성시대=최근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는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른바 △진상 △방상 △어상이다. 하나 같이 상무급 임원을 부르는 말이다. 각각 △진짜 상무 △방(독립된 사무공간)이 있는 상무 △어쩌다가 상무가 된 상무 등을 지칭한다.

5월 현대기아차는 임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사대우→이사→상무를 모두 하나의 상무로 통합했다. 조직의 효율성을

현대차 이사대우·이사·상무 통합 임원 550명 중 상무만 460명 같은 상무끼리도 서열 나뉘어

치열한 ‘사내정치’ 눈치밥 늘어 “경영진과 직원 사이 낀 세대”

위해 비대했던 임원 직급체계를 줄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차 기준 550여 명 임원 가운데 상무급만 460명이 넘는다.

같은 상무급 임원이지만 사정은 제각각이다. 진짜 상무는 직책 개편 이전부터 상무였다. 대부분 요직을 꿰차고 있는 이들이다. 호시탐탐 전무 승진을 노리는 이들이다.

방상은 이보다 뒤늦게 상무에 올랐지만, 서열상으로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가진 상무다. 어상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사대우 및 이사 직급이었던 초급 임원들이다.

같은 상무들이지만 진상과 방상은 사실상 상무 위 상무로 군림한다.

다만 전무 승진을 노렸던 진상들은 이제 경쟁자가 더 많아졌다. 사실상 이사와 이사대우와도 승진 경쟁하는 양상이 됐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12월 정기인사대신 상시 인사제도를 운용 중이다. 8월 초 이 제도를 통해 상무급 30여 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물러난 이들을 따져보면 진상과 어상이 거의 50:50으로 박빙이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눈치밥이 임원 밥 = 삼성그룹의 일부 임원들은 최근 몇 년간 여름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했다.

2014년에는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우면서 회사 안팎으로 분주했고, 2017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있었다.

작년과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삼성 사업장을 찾으면서 청와대 인사들의 방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LG그룹 임원들은 지난해 구광모 회장이 취임 후 구 회장의 경영 스타일 파악에 분주했다고 한다.

최고경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가치를 알아야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 구 회장은 임원들을 향해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만 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계획 달성을 위해 숫자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일부 임원들은 구 회장의 말에 바짝 긴장했다고 전해진다.

본사와 떨어진 곳으로 사육을 옮긴 한 계열사 임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종종 회장실에 불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트윈타워에 있을 때는 마음의 준비나 대책 없이 상황을 접해야 할 때가 많았다. 사육을 이전하고 난 뒤 잘 부르지도 않고 호출이 떨어지기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 예전보다 좋아한다는 후문이다.

‘긴 세대’인 임원은 상급자뿐만 아니라 후배 직원들의 눈치밥도 부담스럽다. C철 강회사 임원들은 기부활동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기부해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임원이 직원들의 기부 상황을 직접 관리하면서 후배들의 눈치도 보게 됐다고 토로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Wenger®
 Swiss Made
 Watches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A Swiss Company since 1893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그룹별 임원 양성법

패션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교육 품격 갖춘 ‘진짜 리더’로 만든다

한화, 사회공헌활동 필수 포스코, 매달 인문학 강연 삼성, 테이블 매너도 배워

대기업들은 차세대 임원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이들 중 단 몇 명만 대기업의 ‘별’인 임원 반열에 오른다.

임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교육을 받지만, 임원이 된 후에도 임원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이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임원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있다. 또 전문분야 외에 인문학 교육 등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키워주는 데 주력한다.

한화그룹은 임원으로 승진하면 우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환기한다.

또 임원들의 사업적 통찰력을 강화하고 조직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국내외 저명 인사를 초빙해 최신 경제 동향과 트렌드 및 인문학 강의를 하는 임원 조찬특강을 매월 실시한다.

근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사업을 새롭게 인식하고 혁신할 수 있는 임원 대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차세대 경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고유의 리더십

교육체계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직급과 직책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신경영어년인 ‘기업시민’을 조직과 지역사회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직원 코칭 방안 등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준비한다.

임원 승진자는 통찰력 향상을 위해 경영트렌드 및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 ‘피움(PIUM)’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며, 차상위 직책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 교육도 받게 된다.

삼성은 임원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보통 3박 4일간의 합숙교육을 진행한다. 경영에 관한 학습은 물론 음악, 미술, 패션, 테이블 매너, 이미지 메이킹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기본 소양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삼성그룹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진행했는데, 최근 2년간은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열렸다.

LG그룹 역시 LG인화원에서 일주일 정도 신입 임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과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은 재무원가·회계, 인문교육 등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인재가 임원으로 승진한다”며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업무 성과 등 기준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외에 디지털 전환이나 사회적 책임 인식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SKT, 광주시와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앞당긴다

SKT컨소시엄, 4년간 8000가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고객참여형 그린 요금제' '이동형 셰어링 ESS' 등 추진 기존 공급자 중심서 소비자 에너지 서비스 전환 기대

SK텔레콤을 주관사로 하는 국책과제 컨소시엄이 광주광역시에 지능형 전력망 기반의 다양한 전력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한국전력공사, 현대차, ㈜효성,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구성한 'SKT컨소시엄'이 광주광역시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지원하는 국책과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향후 4년

간 총 27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SKT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력 요금제 선택권 강화·신재생 전기 공급 등을 단계적으로 실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 에너지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컨소시엄은 광주 소재 아파트 7000가구를 대상으로 '고객 참여형 그린 요금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가정에 스마트미터기를 설치, 시간·기별 사용량을 분석해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



이용섭(왼쪽) 광주광역시장과 신용식 SK텔레콤 스마트 에너지 시티 유닛장이 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생산한 전력량 만큼 전기요금을 차감받거나 전력 중개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해 특정 시점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예식장이나 상가 등의 중소형 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동형

셰어링 ESS서비스'는 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셰어링 ESS는 전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최적화된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트레일러 형태로 이동이 가능해 고정 장비 구매 부담도 낮출 수 있다.

ESS는 배터리에 저장한 전력을 필요 시점에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 또한 컨소시엄은 광주 시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분산자원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를 통해 태양광 패널, ESS 등의 분산 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고, 생산된 전력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SKT컨소시엄은 이같은 실증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 체험단지에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구축,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외부에도 공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알뜰한 전기생활 메카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식 SK텔레콤 스마트 에너지 시티 유닛장은 "SK텔레콤의 안정적 IoT 네트워크와 앞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저렴한 전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박영선 "한국-프랑스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박영선(오른쪽)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드릭 오(Cedric O, 한국명: 오영택) 프랑스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 부디지탈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스타트업 및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 8곳 협의회 결성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화해야"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룰로, 매스아시아, 윈드 등 8개기업의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들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에 산업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코스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1100개 스타트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유 전동킵보드 협의회는 독일 업체인 윈드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코스포 산하 회원사들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외국계 스타트업이라도 국내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협의회 구성 대상"이라고

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공유 전동킵보드 서비스인 킵고잉은 9월 가입자가 25만 명을 넘었고, 씽씽은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또는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탈 수 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차도로만 달려야 한다. 다만 고고성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7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올해 9월에도 발표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들은 안전 문제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룰로, PUMP, 매스아시아, 닥트, 빔 등 공유 전동킵보드 5개 업체는 6일 서울 강남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간은 낮 12~1시로 예정돼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강남경찰서와 함께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강남경찰서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등을 알릴 방침이며 업체들은 각 사의 전동킵보드를 갖고 나와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협업에서 먼저 협의회 결성을 제안한 이유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도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

을 겪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올해 9월에도 발표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들은 안전 문제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룰로, PUMP, 매스아시아, 닥트, 빔 등 공유 전동킵보드 5개 업체는 6일 서울 강남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간은 낮 12~1시로 예정돼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강남경찰서와 함께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강남경찰서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등을 알릴 방침이며 업체들은 각 사의 전동킵보드를 갖고 나와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과기부, AI·빅데이터·네트워크 전담기구 구축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설 등 정보통신분야 기능 대폭 강화

정부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2차관실 조직을 현재 '1실 7국 28과'에서 '2실 8국 30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 강화

를 위해 시행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정책 조정 전담기구인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가속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실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 인터넷융합정책관의 업무를 조정

해 정보통신정책관에서 규제혁신과 디지털 포용정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2차관실 조직으로 정보보호와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네트워크정책실이 설치된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해 현재 정보보호정책관의 업무를 확대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만들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소상공인 폐업·재기 도와드려요"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설치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 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됐다. 서울 등 전국 30개소가 설치돼 운영된다.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

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싼 맛’에 사는 홈쇼핑? ‘럭셔리 패션’도 잘나가네

롯데홈쇼핑 390만 원대 'LBL 롱코트' 론칭 방송 매진
CJ오쇼핑 '프리메라 롱코트'도 29분 만에 10억 매출
가성비 위주서 소재 고급화 통해 '프리미엄 전략' 선회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홈쇼핑 패션이 인기다.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성비·가심비로 대표되던 홈쇼핑 업계가 최근 패션 고급화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 유명 디자이너와 손잡고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자체 제작 브랜드를 선보이는 데에서 나아가 소재 고급화를 통해 백화점 패션 못지않은 프리미엄 패션을 판매하는 식이다. 기존 홈쇼핑에서 보기 힘든 수백만 원대 프리미엄 패션임에도 높은 주문금액을 기록하며 매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롯데홈쇼핑은 자체 패션 브랜드 'LBL'의 이번 시즌 최고가 상품인 '친질라 피아나 후드 롱코트(390만 원대)'가 9월 론칭 이후 총 4회 방송을 통해 현재까지 2000세트가량 판매됐고 주문금액은 51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친질라 피아나 후드 롱코트'는 9월 첫 방송에서 60분 동안 주문 수량 1000건, 주문금액 30억 원을 기록해 준비된 수량을 모두 판매했다.

캐시 울과 친질라 모피가 어우러진 이코트는 기존 홈쇼핑에서 접할 수 없던 최상급 제품이다. 친질라는 다람쥐꼬리의 동물로, 실크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촉감의 털

이 특징이다. 밍크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되며 세이블(족제비)과 함께 최상급 모피로 분류된다.

LBL이 최초로 선보인 남성 '제냐 캐시미어 코트(190만 원대)'도 지난달 방송에서 주문 수량 180벌, 주문금액 2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롯데홈쇼핑은 '명품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옷을 홈쇼핑에서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1년여간 최상급으로 꼽히는 '제냐' 원단을 도입해 '제냐 캐시미어 코트'를 제작했다.

최근 프리미엄 패션사업 확대를 선언한 현대홈쇼핑의 '캐시미어 100% 리버시블 맥시 롱 후드 코트(139만 원)'는 지난달 18일 론칭 방송에서 30분 만에 약 6억 원의 주문금액을 기록했다. 현대홈쇼핑은 몽골 캐시미어 전문기업 '고비(GOBI)'사와 손잡고 이번 시즌 코트·니트 등 다양한 캐시미어 의류를 선보였다. 현대홈쇼핑은 상품 판매 추이와 고객 반응 등을 살핀 뒤 고가(야마 캐시미어) 및 유기농(고비 오가닉) 라인 등도 추가 론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홈쇼핑은 정구호의 'JBY', 앤디앤엠(김석원·윤원정 디자이너)의 'A&D'에 이어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로 꼽히



롯데홈쇼핑 'LBL' 친질라 피아나 후드 롱코트(왼쪽부터), 현대홈쇼핑 '고비' 캐시미어 리버시블 맥시 롱 후드 코트, CJ오쇼핑 '칼 라거펠트 파리스' 스페인 토스카나 롱코트. 사진제공 각사

는 이상봉 디자이너와 손잡고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이상봉 에디션'을 지난달 론칭했다. 현대홈쇼핑은 '이상봉 에디션'을 통해 이번 시즌 밍크와 캐시미어 등 보온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소재를 적용한 12개 상품을 내놓는다. 가격은 최고 200만 원대로 책정했다.

CJ오쇼핑 디자이너 브랜드 '칼 라거펠트 파리스(KARL LAGERFELD PARIS)'의 '프리메라 토스카나 롱코트(139만 원)'는 지난달 12일 론칭 방송에서 29분 동안 10억 원의 주문금액을 올렸다. 프리메라 토스카나 롱코트는 최상위 등급 소재로 분류되는 스페인산 토스카나(생후 6개월 미만 어린 양의 가죽) 원피를 사용한 제품이다. GS샵도 디자이너 손정완과 만든 패션

브랜드 'SJ WANI(에스제이와니)'를 통해 99만 원짜리 무스탕 리버시블코트를 이달 중 론칭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홈쇼핑만이 선보일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한 경쟁도 한창"이라며 "그중에서도 패션사업은 단독 제품을 출시하기 좋은 만큼 디자이너와의 협업, 자체 브랜드 론칭 등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에는 홈쇼핑업체가 백화점에서 볼 수 있던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며 "수백만 원짜리 제품이 기대 이상으로 팔려나가는 만큼 업체들은 홈쇼핑 패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미선 기자 only@

셀트리온·아이큐어 치매 신약 임상 3상

도네페질 패치제 내년 허가 목표

셀트리온은 아이큐어와 함께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패치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가 본격화함에 따라 다양한 케미컬의약품 포트폴리오 확보 차원에서 도네페질 패치제 개발에 나섰다. 아이큐어는 경피약물 전달 기술 특허 5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2017년 6월 아이큐어가 개발해 비임상 및 임상 1상을 마친 치매 치료 도네페질 패치제 개량신약에 대한 국내 공동 판권 계약을 체결한 셀트리온은 현재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동 임상 3상 중이다. 올해 말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2020년 말 도네페질 패치제 국내 허가를 목표로 노인성 뇌질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도네페질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800억 원으로, 최근 4년간 13%대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2021년에는 25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도네페질은 치매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으로 현재 경구 제형만 상용화됐다.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공동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네페질 패치제 개량신약은 기존 1일 1회 경구제 복용 대신 1주일 2회 패치 부착으로 복용 순응도를 높이고, 패치 크기를 줄여 복용 편리성을 높였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10여 개국에 다중 특허를 출원해 2035년까지 독점권을 보유하는 한편, 아이큐어가 400억 원을 투자해 완공한 전북 완주공장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cGMP급 생산기지도 확보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는 셀트리온이 다양한 케미컬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 및 글로벌 판매를 통해 세계 케미컬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편의점 공급가 내린 日맥주 판매량 회복 효과는 글썄...

판매가격은 유지... "부담 감소" "재고 떠넘기기" 의견 분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맥주가 계속 외면당하자 일본 맥주 브랜드들이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판매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맥주업체들은 7월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크게 위축되자 닷달 만에 일부 편의점에 공급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불매운동 영향에 따른 매출 반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1일부터 일본 맥주에 대해 원가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관계사인 롯데아시아가 판매 부진을 타개하



뉴스스

기 위해 코리아세븐에 제안했고, 코리아세븐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아시아 맥주의 공급가는 정상가에서 약 30%가량 인하됐다. 이로써 아시아 맥주 500ml의 정상 주문 원가는 2800원에서 1580원으로 내려갔다. 일본 불매운동 이후 공급된 아시아 맥주에도 가격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4캔 1만 원 행사가격으로 공급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요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매

출은 행사 제외 전과 비교해 최대 약 90%가량 급감한 상태다. 편의점 한 곳당 어림잡아 100만 원 내외의 일본 맥주 재고를 떠안은 셈이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의 아시아 맥주 공급가 인하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점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일본 제품 판매를 조정한다는 비난을 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제품 판매를 유도한다는 비난이 두려워서"라며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인데 일본 맥주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판매가격 인하로 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세븐일레븐의 일본 맥주 가격 인하나 편의점 전반으로 확산되는 미지수다. GS25와 CU(씨유), 이마트24, 미니ストップ 등은 일본 맥주의 가격인하 계획이 없는 상태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이 아닌 다른 편의점에도) 일본 맥주업체의 제안이 있었지만 소비자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스테인리스 김치통이 9000원대 이마트가 김장 시즌을 맞아 스테인리스(Stainless) 김치통을 선보였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스텐 김치통 2입(540ml~3.1ℓ)을 각 9900~1만9900원에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락앤락' 스텐 김치통 3종은 2만6900~5만3900원에 판매하며 행사상품 구매 시 3000·5000·7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평창 룬패딩' 기록 갱 캐시미어 니트

롯데백, 한 달 만에 5만 장 판매

롯데백화점이 선보인 '캐시미어 100% 니트'가 한 달 만에 누적판매량 5만 장을 넘어섰다.

롯데백화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2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캐시미어 100% 니트'가 한 달여 만인 2일까지 총 5만여 장의 판매를 기록해 2017년 12월 큰 이슈였던 '평창 룬패딩'의 판매량인 3만여 장을 뛰어넘었다고 5일 밝혔다.

캐시미어 소재는 가볍고, 보온 효과가 우수해 고가 원단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은 사전 기획을 통한 대규모 물량 확보를 통해 캐시미어 100% 소재의 여성용 니트를 8만8000원에, 남성용 니트를 9만8000원이라는 10만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부터 기획하기

시작해 내몽고 지역의 캐시미어 원사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체계적인 생산 계획을 세움으로써 남성·여성용 니트를 10만 원 이하 가격에 선보일 수 있었다.

또 블랙, 그레이 등 무채색뿐 아니라 고가의 취향을 반영한 레드, 핑크, 옐로우 등 총 37종의 다양한 색상을 준비한 것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도 캐시미어 판매량 증가에 한몫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서울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의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두꺼운 외투보다는 보온성이 높고 가벼운 캐시미어 니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이다.

김준경 롯데백화점 PB 운영팀 차프바 이어는 "비교적 고가의 소재인 캐시미어를 누구나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아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이템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캐시미어를 필두로 니트 전문 브랜드인 '유닛'의 연 1000억 목표를 위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상품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2019년 1월~11월4일)

코스피 시총 38% 쉐어 1위... 영국, 174兆 '거래대금 1위'

외국인이 떴다

싱가포르·미국·아일랜드 뒤이어 75개국... 올해 거래대금 582兆 삼성전자·SK하이닉스 거래 많아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75개 국적의 외국인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체결 시 주문자 계좌에 입력돼 있는 국적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로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주, 억 원, 기준: 1월 1일~11월 4일)

코스피			코스닥		
국적	거래량	거래대금	국적	거래량	거래대금
영국	7868	174조4621	영국	10046	73조5163
싱가포르	2012	51조9208	오스트레일리아	4126	20조9423
미국	707	29조4169	싱가포르	2344	19조0836
아일랜드	1171	23조1574	아일랜드	1920	12조9836
스위스	706	19조4278	케이맨 제도	1444	10조7239
케이맨 제도	920	16조3320	스위스	646	5조8137
오스트레일리아	2219	14조2791	독일	233	2조3498
프랑스	231	9조2373	미국	116	2조1407
룩셈부르크	184	8조1087	룩셈부르크	31	8250



※출처: 한국거래소

집계됐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시가총액의 38.42% (549조 원) 수준이다. 이는 2006년 (38.4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들어 지난 4일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대금은 582조459억 원으로 이 중 영국인이 총 174조462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 (29.97%)을 기록했다.

이어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 거래대금이 51조9208억 원 (8.92%)으로 뒤를 이었고, 미국 (5.05%), 아일랜드 (3.97%), 스위스 (3.33%), 케이맨제도 (2.80%), 오스트레일리아 (2.45%), 룩셈부르크 (1.39%), 독일 (1.39%)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국가가 펀드 운

용이 잘되고 있는데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주식 중 70%가 펀드"라며 "펀드운용사 분포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용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코스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레바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프랑스, 핀란드 등 다양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홍콩,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캐나다, 필리핀, 바하마,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58개국의 외국인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이 연초 이후 73조5163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전체의 44.90%를 차지했다. 이어 오스트레일리아가 20조9423억 원으로 12.79%를 기록했고 싱가포르 (11.65%), 케이맨제도 (6.55%), 스위스 (3.55%), 독일 (1.43%)이 뒤를 이

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영국인이 3억 7914만 주를 거래하며 거래 규모가 가장 컸고, 미국 (1억2512만 주), 싱가포르 (1억84만 주), 스위스 (6586만 주), 홍콩 (3568만 주), 프랑스 (3268만 주)가 뒤를 이었다.

SK하이닉스는 영국 (1억5587만 주), 싱가포르 (3950만 주), 미국 (2982만 주), 스위스 (1847만 주) 순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영국 (3571만 주), 케이맨제도 (2188만 주), 싱가포르 (693만 주), 스위스 (549만 주) 등이 뒤를 이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한국 경기가 회복하고 예상보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며 "또 환시장에 주목해야 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시장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M&A서 길 찾는 대기업

▶1면서 계속

그가 예상하는 시장 규모는 100조 원대 (사고파는 기준)에 달한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기업 사냥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는 "대기업그룹에서 이른바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배경 삼아 관련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10년간 (2008~2017년) 연평균 3건에 그쳤던 해외 소재·부품 기업 M&A와 지분 투자 등이 30건 이상으로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상으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유럽의 소·부·장 업체들을 꼽았다.

정부 정책 이슈도 기업들을 M&A시장으로 내몰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대기업들은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현행법을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내놔야 하는 매물들이 있다. 롯데그룹은 금산분리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완료했으며, LG그룹은 LG CNS 지분 처분에 나선 상황이다.

사모투자펀드 (PEF)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굳이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M&A에 손을 잡지 않겠다'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라면 갑의 위치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복수의 PEF 관계자가 전하는 최근 M&A 시장의 풍경이다. 올해 최대어로 불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 캐피탈이 손잡은 게 이를 방증한다.

유 리더는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PEF가 내년 M&A 시장의 또 다른 주연"이라며 "특히 5000억 원 이하의 '미들마켓 (Middle Market)에서는 PEF가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익률 고공행진에도... 돈 빠지는 '브라질 펀드'

연초 이후 평균 17% 올랐지만 자금 321억 시장서 빠져나가

"내년 경기 호전, 장기투자 바람직"

브라질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브라질 펀드 수익률도 두 자릿수로 뛰었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금투업계는 내년 브라질 경기가 더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장기 투자를 조언한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브라질에 투자하는 펀드 9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전일 기준 17.35%에 달한다.

펀드별로 보면 '미래에셋인텍스로브라질증권투자신탁 (주식) 종류C-e'가 22.9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한화브라질증권투자신탁 C-E (22.90%)', '미래에셋브라질증권대표증권

브라질 펀드 수익률

(단위 : %, 4일 기준, 연초 이후)

펀드명	수익률
미래에셋인텍스로브라질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22.91
한화브라질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E클래스	22.90
미래에셋브라질증권대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20.40
멀티에셋삼브라질증권투자신탁(주식)A	17.99
신한BNPP브라질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C-W	16.21
KB브라질증권투자신탁(주식)A-E클래스	11.73

※출처: 에프앤가이드

투자신탁 1A-e (20.40%)', '멀티에셋삼브라질증권투자신탁A (17.99%)', '신한BNPP브라질증권투자신탁(H) C-W (16.21%)' 등의 수익률이 높았다.

브라질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은 영향이다.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Bovespa) 지수는 4일 (현지시간) 10만8779.33포인트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초 9만 1012.31포인트와 비교하면 19.52% 뛰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달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후 브라질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신흥국 (EM) 증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경제 관련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다. 연초 이후 상장지수펀드 (ETF)를 제외한 브라질 펀드 9개 설정액은 전일 기준 321억7714만 원이 유출됐다.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펀드는 '미래에셋브라질증권대표증권투자신탁 1'로 설정액이 129억682만 원 유출됐다. 반면 유일하게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미래에셋인텍스로브라질증권대표증권투자신탁 1'로 10억5350만 원이 들어왔다. 해당 펀드는 자금 유출이 가장 컸던 펀드와 모펀드를 공유하지만 연금형 펀드로 분류된다. 이다원 기자 leedw@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 (회계실무/세무실무) 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코스닥 상장사 '배임·횡령' 2배 늘어

금감원, 올해 19개사 공시

대부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상폐 위기 직면 "투자 주의해야"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 대다수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19개로, 전년 동기(10건)보다 90%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관련 사건 발생을 밝힌 코스닥 상장사는 6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상장사는 세원물산으로 1757억 원에 달했다. 공시 당시 시가 총액인 524억 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김문기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 3명은 3개 회사(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에 4200억 원대를 업무상 배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내용은 김 회장의

올해 횡령·배임 사실 공시기업

기업명	공시 날짜	액수(자기자본대비)
리드	10월 30일	836억 원(202%)
크로바하이텍	10월 16일	31억 원(9.8%)
녹원씨엔아이	7월 29일	40억 원(32.7%)
더블유에프엠	9월 23일	16억 원(8.14%)
한류타임즈	9월 19일	98억 원(31.4%)
경남제약	4월 10일	25억 원(16%)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남 김도현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횡령·배임 혐의 사실은 지난해 12월 발생했지만 회사는 반년이 넘게 경과된 7월에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세원물산은 8월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현재 임직원이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리드도 비슷한 사례다. 부회장 박모 씨와 부장 강모 씨 등이 2016년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2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해 수사에 나섰지만 이후 확인된 횡령 피해 금액은 4배로 불어났다.

이외에도 녹원씨엔아이, 더블유에프엠, 경남제약, 피엔텔, 포스링크 등도 전현직 임원진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다. 바이오빌, 한류타임즈, 화진, 지와이커머스, EMW 등은 복수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들 기업들 상당수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상장폐지 위기까지 겪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모럴 해저드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 코스피시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원진 횡령·배임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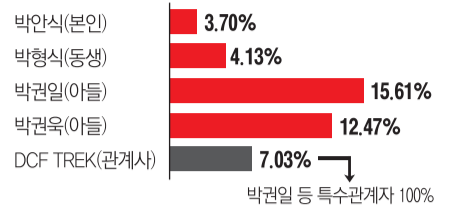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느슨한 국가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대창단조 '관계사 활용' 승계 밑그림

최대주주 박안식 회장 두 아들
무상증자 시작 매년 주식 증여
3대주주 통한 지배권 강화 등
대기업 경영승계 방식과 유사

대창단조 최대주주 지분 현황



코스피 상장사 대창단조가 오너 일가 소유의 관계사를 경영승계에 활용할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시장의 관심 밖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를 내부거래로 키우고 경영승계의 지렛대로 쓰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창단조의 최대주주는 박안식 회장(3.70%)과 그의 동생 박형식 씨(4.13%), 박 회장의 두 아들인 박권일 사장(15.61%), 박권욱 부사장(12.47%) 외에 관계사인 DCF TREK(7.03%) 등으로 총 42.94%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창단조는 1955년 세워진 대창크랭크 단조공업사가 모태다.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로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직전 해인 1988년과 1989년에 무상증자를 했으며 당시 두 형제가 주식을 취득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해 박 회장이 아들에게 일정 주식을 증여하며 승계를 준비했다. 이어 2007년 2월 15만여 주를 또다시 증여하면서 처음으로 장남인 박 사장의 보유 지분율이 박 회장을 앞서게 됐다. 두 형제는 이후에도 꾸준히 장내에서 주식을 사고팔며 현재 수준으로 지분을 늘렸다.

대창단조는 증여 외에 관계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도 힘썼다. 두 형제에 이어 3대 주주로 올라선 DCF TREK(디씨에프트

랙)가 중심 역할을 맡았다. DCF TREK은 1987년 설립된 크랭크 및 중기부품 제조업체다. 1999년 최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주주 구성이 빠져 있어 회사 소유권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그러다 2017년 외부회계법인이 바뀌면서 박 사장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공개됐다.

DCF TREK은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창단조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였다. 2006년에만 7만여 주,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집했다. 지분 확보는 2007년과 2010년, 2011년에도 이어져 보유 주식은 16만 주가량 됐다. 매수 대금은 총 26억여 원이며 대부분 매출채권을 할인해 취득자금을 마련했다. DCF TREK은 대창단조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오른 2014년 4만 5000주를 팔아 161%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주가가 4만~5만 원대의 고점에도 다시 매집을 시작해 현재 지분을 확보했다.

한편 박 사장 등 DCF TREK 주주들은 회사를 통한 대창단조 지배권 강화 외에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된 실적과 배당 이익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DCF TREK은 작년 매출 471억 원 중 51.2%를 대창단조를 비롯한 관계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늘 밤 무대에 설 오페라 주인공이 사라졌다?!
대학로 자유극장
2019.10.25 - 12.31
테너를 빌려줘

비츠로시스 '오너 리스크'에 희생절차 제동?

창업주 불법 신용공여 혐의 기소

비츠로시스가 희생절차 중 M&A를 눈앞에 두고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다. 창업주 등이 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창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 확인했으며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츠로시스 법인은 창업주인 장태수 전 대표 등 특수관계자와 함께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자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한 혐의다. 검찰이 추정하는 신용공여액은 978억 원에 달한다.

비츠로시스는 올해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희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용카드와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여러 시중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75억 원과 이자 108만 원을 갚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상황은 더 큰 위기에 몰렸다. 결국 8월 공개 M&A를 통해 인수자 찾기에 나섰고 2개월여 만인 10월 한창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창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츠로시스에 7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재 계약금을 낸 상태다. 한창컨소시엄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통보를 받거나 합의된 내용이 없이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빗썸 지수 (2019년 11월 5일 17:00, KST)

전일 대비: 3,000원 (-)
6개월 대비: 2,138,452원 (25.0%▲)

전일 대비: 1,400원 (0.7%▲)
6개월 대비: -45,497원 (17.6%▼)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34,100	-1,600 (0.5%▼)	모네로	72,350	-1,200 (1.6%▼)
리플	345	6 (1.8%▲)	비트코인골드	9,690	170 (1.8%▲)
라이트코인	71,350	2,850 (4.2%▲)	이더리움 클래식	5,675	-40 (0.7%▼)
대시	83,350	150 (0.2%▲)	퀀텀	2,557	111 (4.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정비사업 부진 시 구역 해제〉

“일몰제 피하자”...속도 내는 강남 재건축

내년 3월 정비구역 적용 앞두고
잠실장미 재건축 동의율 75.2%
지지부진했던 조합설립 ‘급물살’
신반포4차·진흥 등도 추진 서둘러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안에 사업 진척이 안 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매물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 시 오히려 주택 공급 불균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1·2·3차(총 3522가구)가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마련하고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4일 기준 장미아파트의 재건축 동의율은 아파트 80.81%, 상가 50.91%로 전체 주민 75.2%를 기록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준인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 75% 이상의 조건을 채운 것이다. 이로써 그간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잠실 장미아파트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일정을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1월 중 조합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월 인가

일몰제 대상 주요 재건축 단지

단지명	위치
압구정특별3	강남구 압구정동
방배삼호아파트	서초구 방배동
장미 1, 2, 3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신반포 4차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진흥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신반포 2차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목화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개봉3아파트	구로구 고척동
봉천 1-1	관악구 봉천동

※출처: 서울시

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주공5단지과 도로 하나를 놓고 마주보고 있는 잠실 장미아파트는 잠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장미아파트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돼 재건축 추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와 서초동 진흥아파트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율은 90%를 넘었으나 상가 소유주들의 설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아파트와 상가 간 합의를 이룬 시간 내 도출하고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계

획구역, 여의도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 등 서울지역에서만 약 40여 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대부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실 잠실 장미아파트와 신반포 4차, 진흥아파트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규 인·허가 역시 까다로워져 서울시 역시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에 나섰다. 해제를 통보받아 ‘1호’ 일몰제 적용 사업장이 됐다. 한 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일몰제 해제 대상 단지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문제는 다수 단지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불균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분양 역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당장 조합 설립 압박 소식이 전해진 잠실 장미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 달 새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2억 원 이상 올랐다.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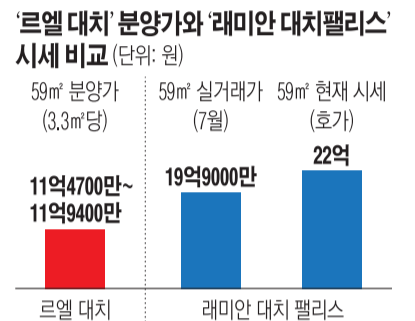


강남구 대치동 '르엘 대치' 조감도.

교육특구 대치동 '로또 아파트' 나온다

주변단지보다 시세 낮아...당첨 땀 차이 10억 '홀쩍'

'르엘대치' 전분주택 문 열어
일반분양 적어 '先분양' 선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학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주변 단지와 시세 차가 최고 10억 원 안팎까지 벌어지는 데다 대입 정시 확대 가능성에 최근 매물의 씨가 말라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대치'가 이번 주 전분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당초 후분양을 고려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고 선분양으로 선회한 단지다.

이 단지는 지상 15층 6개동에 총 273가구의 작은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31가구에 불과하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가 11억 4700만~11억 9400만 원 선이다. 입지에 차이는 있지만 대치동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레이안 대치 팰리스'와 비교할 때 약 8억 원가량이 낮다. 레이안 대치 팰리스 전용 59㎡는 7월 19억

9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최근 호가가 22억 원 수준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가격 차는 10억 원대로 벌어진다.

르엘 대치의 분양가는 앞서 먼저 분양한 '레이안 라클레시'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와 역삼동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개나리4차 재건축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지만, 레이안 라클레시와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가 주변 단지와 시세 차가 각각 6억 원, 5억 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는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다만 최근 강남권 분양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이 70점에 육박하는 점은 가점이 낮은 청약 수요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9월 분양한 레이안 라클레시는 평균 가점이 69.5점으로 최고 가점은 만점(84점)에서 불과 5점 부족한 79점, 최저 가점 역시 64점이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적어야

국토부, 내년 2월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

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서지희 기자 jhsseo@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고즈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

2심 재판부, '땅콩 회항' 배상액 늘려...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배소는 기각

법원이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 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사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대한항공의 부당징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배상금은 증액됐으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 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때아닌 녹조에 광고저수지 몸살 5일 오후 초여름에 많이 생기는 녹조가 이상현상으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고저수지에 발생해 저수지의 담수가 녹색으로 변해 있다. 광고저수지는 수원 시민의 비상 상수원이다. 뉴시스

“드론택시·자율주행 버스 체험하세요”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8~9일 상암 문화광장서 열려

유인드론, 자율주행 등 서울의 미래 교통 수단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8~9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와 MBC 앞 문화광장에서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의 미래,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제 콘퍼런스와 유인드론,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 전시,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국제 콘퍼런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모시 벤 아카바 MIT 교수 등 산·학·연·관이 모여 전문지식을 공유해 유인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진다. 박 시장은 행사에서 자율주행 택배로봇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서울 선언문’을 선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6월 세계 최초로 서울시가 상암에 구축한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가 이틀간 테스트베드 도로로 조성된 월드컵북로와 상암로 일대 약 3.3km를 주행한다. 드론택시 업체를 선도하는 독일의 볼로퍼터, 중국의 이항, 미국의 우버가 드론 기체도 직접 선보인다.

더불어 자율주행 택배 로봇 두 대가 주차, 장애물 회피, 교차로 주행, 장애물 긴급정지 등을 보여주고 택배 운반 미션을 수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이 세계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모빌리티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서울 경제 활력을 만드는 미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檢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 등 4곳 벌금형 구형

“조세법 위반 혐의 3억~20억” 업체측 “관행... 고의성 없어”

검찰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 등 4개 법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법원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SK해운, SK에너지, SK B&T 서울영업소, 캠오일인터내셔널 한국지사에 벌금 3억~2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은 자회사와 업체들에 2200억 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캠오일은 SK해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SK B&T는 모회사인 SK해운으로부터 방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변호인들은 최종변론 PPT를 통해 “업계에서 거래 관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인 만큼 고의성이 없고,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캠오일 변호인 측은 “선박유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캠오일 한국지사)이 아니라 캠오일인터내셔널 본사”라며 “거대한 정유사와 선사 누구도 공급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SK에너지 변호인도 “수출 신고를 마쳤고 적법한 수출에 해당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SK B&T 변호인은 “해상유, 연료유 등이 모두 수출 신고 이후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수출되는 재화의 경우 국내에서의 과세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범처벌법 1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발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신아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맛을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체질별 한방차 - 내 몸이 차를 좋아하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캠핑 체험 1박 2일 - "땅주와 다비(茶道)를 즐겨요"
 PART6 힐링 찾기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더라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찮고 그의 귀농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농 7년 차. 농사도 살림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문)씨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원을 울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례'로 치지만, 사실은 슬며 시련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it's time for tea

신라비가 만난 사람

김민식이 그려온 11월에는
빙하기 싫어 공언해요!
인디그래프의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천동과 현비를 위한 창작으로
윤영익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아티스트
신인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백수여객
김종조

타면타면 산책 청리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리언덕으로 가는 길에 기국 동우생각을
종알았다. '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리언덕' 위해
백합 필 적재하는 한나리꽃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랫노래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레라리 근대
풍경을 묘사한 백화골목을 지나자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리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용하야 고고가게를 지난
5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6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풍겨올
피어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성을 총망라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의 친목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했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기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美 달러 가치 고정 가상화폐〉

‘다이’ 코인 발행량 1억 달러 눈앞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s·디앱)으로 만들어진 미국 달러 가치 고정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다이(DAI)’가 총 발행량 1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에서 활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이는 이제 디파이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파이 기본 통화로 = 5일 가상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다이의 시가총액은 9421만 달러입니다. 총 공급량이 9355만여 개인데, 미국 달러보다 높은 가치로 거래되는 셈이죠.

올해 4월 최대치였던 9505만 달러 이후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이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미국 달러 가치와 고정된 스테이블(Stable) 코인입니다. 다이를 발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180만 이더(Ether)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다이는 2017년 말 처음 발행된 이후 꾸준히 발행량을 늘려왔는데요. 1년 동안 약 6937만 달러(2018년 12월 31일 기준)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다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선 자주 사용됐지만,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여전히 비주류 코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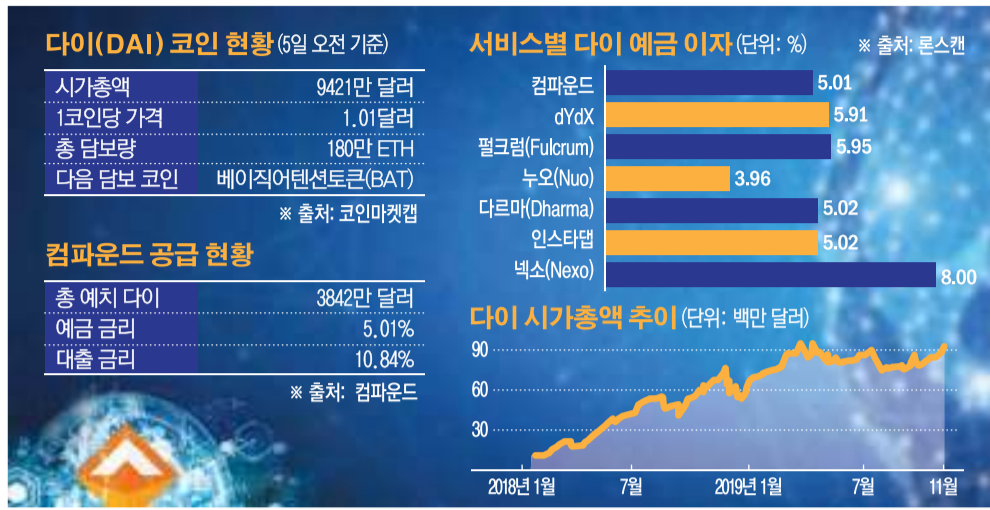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2018년 12월 19일 다이 코인을 상장한 이후부터죠.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다이의 증권 분류 가능성 때문에, 상장에 신중했는데요. 상장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코인베이스가 다이 코인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이는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유에스디코인(USDC) 시장에서 다이를 지원하면서 유동성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이 코인이 안정적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코인베이스 상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 담보로 한 단계 도약 = 다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마트컨트랙트(자동이행계약)로 만들어집니다.

이더리움을 담보한 시점의 가치 중 일정 비율



작년말 코인베이스 ‘다이’ 상장

탈중앙화 금융서 활용 ‘수요 급증’

이더리움 담보로만 지급했지만

18일부터 ‘다중 담보’로 안전성 ↑

이더리움 디앱 프로젝트 연동도 강점

유니스왑·디와이드엑스 등 거래 가능

에 해당하는 다이를 지급받는 원리죠. 담보비율은 대출금의 150% 이하에서 차주(대출자)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다이를 대출하기 위해선 최소 150만 원 가치의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2년간 이더리움으로 운영해온 다이 운영사 메이커다오(Maker DAO) 측은 11월 18일부터 다른 코인을 담보로 받는 ‘다중 담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이는 스마트컨트랙트의 결합 위험, 담보 가치 안정성, 운영상 문제 등으로 1억 달러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다중 담보 채택 이후 향후 다이 발행량이 1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외에 가장 먼저 채택한 코인은 바이직어텐션토큰(BAT)인데요.

BAT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직접 후원이나 기부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죠. 사용자들은 광고를 시청하고 BAT 코인을 받거나, 시장에

서 구매한 코인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토큰화된 실물자산이나, 고유가치를 지닌 디지털 저작물 등 다양한 담보가 나올 전망입니다.

최근 다이는 트론 네트워크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며, 여러 방면에서 사용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이군들 = 다이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7%(디파이펄스 5일 오전 기준)로 절반이 넘습니다. 다이의 중요성은 비율만으로 계산하기 힘든데요.

다른 디앱과 연동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코인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컴파운드’에선 다이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각각 5.01%, 10.84%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컴파운드에 예치한 다이를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이가 이더리움에서 쓰는 표준 방식(ERC20)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이가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죠.

이런 특징 때문에 마진 거래 서비스인 ‘dYdX(디와이드엑스)’에서도 기준 달러 코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스타랩, 누오네트워크, 방코르, 카이버, 어거 등 이더리움 디앱 프로젝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장 이모저모

가상화폐(암호화폐) 지지자로 유명한 론 폴(Ron Paul)이 비트코인을 기부 받았다.



‘金 옹호론자’ 론 폴, 비트코인 선물받아

11월 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재단 이사회 멤버이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 바비 리(Bobby Lee)가 미국 전 하원의원인 론 폴에게 비트코인(Bitcoin·BTC)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비 리는 론 폴에게 준 선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코인은 자신의 회사인 발레 크립토에서 만든 금도금 비트코인 지갑(wallet)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 지갑이 론 폴 전직 의원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맞춤형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한 비판가인 론 폴은 금 옹호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 그는 7월 자신이 경쟁 통화 지지자로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트코인, 익명화 프로토콜 구현 추진

찰리 리(Charlie Lee) 라이트코인(LTC) 설립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라이트코인에 익명화 프로토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찰리 리는 트위터에서 그린(GRIN)의 개발자인 데이비드 버켓(David Burkett)을 태그하며 “라이트코인 재단은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 밈블웜블 프로토콜과 확장 블록을 구현하고 그린의 가상화폐 지갑 개발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밈블웜블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익명화 프로토콜의 일종이다. 가상화폐 중에서는 그린과 빔(BEAM)이 밈블웜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이오스’ 中 CCID 코인 평가 부동의 1위

중국 정보 산업개발 센터(CCID)가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평가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오스(EOS)가 1위를 했고 2위는 트론(TRON), 3위는 이더리움(ETH)이 차지했다. 최근 중국 정부기관 CCID가 35개의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발표한 14번째 블록체인 등급 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이후로 1위 자리를 지켜온 이오스가 1위를 했다. 또한 트론은 이더리움을 밀어내고 2위에 올랐다. 리스크(Lisk)가 빠르게 상승해 7위를 차지했고,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11위에 머물렀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민당)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기업은행의 기업은
당신입니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힘이 되도록
약속할게요. 늘 곁에 있겠다고

“고기 식감의 70~80%...건강·환경문제 동시 해결”

대체육류 전문기업 '디보선푸드' 박형수 대표

美 유학시절 느낀 축산업 환경오염 실태 개선하려 창업 결심 '콩고기' TSP 아닌 다른 곡물류 재료로 한 TVP 국내 첫 시도

“저희 목표는 축산업이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식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육류죠.”

디보선푸드는 대체육류를 만드는 업체다. 5일 만난 디보선푸드 박형수 대표와 이영민 이사는 대체육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대체육류를 식품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식자재로 꼽았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기존 축산업이 일으키는 각종 환경오염의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꿔 보자는 생각으로 디보선푸드 창업을 결심했다.

우리가 흔히 ‘콩고기’라고 부르는 음식은 ‘텍스처드 소이 프로틴(TSP)’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콩을 주요 재료로 고기의 질감을 구현한 음식이다. 디보선푸드의 대체육은 ‘텍스처드 베지터블 프로틴(TVP)’이라는 종류인데, 이는 콩이 아닌

곡물류 등을 주요 재료로 만드는 대체육을 말한다. TVP는 디보선푸드 이전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종류의 대체육 상품이다.

“귀리 같은 곡류를 고온고압으로 팽창시켜 식물성 조직단백질을, 적색 근채소류의 즙으로 식물성 피를, 식물성 기름을 응고시켜 식물성 지방을 만들어 대체육을 제작합니다. 응고시킨 식물성 기름을 트랜스지방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화학첨가물 없이 식물성 기름을 응고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TSP가 아닌 TVP를 개발하는 이유는 기존 콩고기보다 나은 식감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 역시 보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저희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 대체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콩을 재배할 때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GMO로부터 완전히



디보선푸드의 박형수(오른쪽) 대표와 이영민 이사는 미국 유학 시절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도 유익한 대체육류 개발을 위해 디보선푸드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안전하고, 화학첨가물도 전혀 없는,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고기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박 대표와 이 이사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체육이 고기의 70~80%까지 근접해 있다고. 두 사람은 디보선푸드의 대체육 역시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미국 제품과 저희 제품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결과라고 한다. 두 곳의 대기업에서 연

구 제의가 오기도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덕분이다.

두 사람은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수출되는 제품이 많이 없잖아요. 환경과 건강을 잡는 식자재 개발, 더 나아가 수출을 통해서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도 하는 식자재로서 저희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류현진, 디그롬·셔저와 함께 NL 사이영상 최종후보 3인에

류현진(32·사진)이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와 함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양대 리그 신인상, 올해의 감독, 사이영상, 최우수선수(MVP) 후보 3인을 5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류현진은 리그 사이영상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는 디그롬, 월드시리즈 우승 투수 셔저와 함께 사이영상 최종 후보 3명에 선정됐다. 류현진이 만일 사이영상을 받게 되면 한국 선수 최초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그동안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사이영상에 가장 가까웠던 선수는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다. 다르빗슈 유는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이던 2013년 93점을 받으며 아메리칸리그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사이영상은 MLB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설적인 투수 텐트 트루 사이영의 이름을 따 1956년 제정됐다. 정규시즌이 끝난 뒤 BBWAA 소속 기자 30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사이영상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이영상 투표는 지난달 초 이뤄졌으며, 최종 발표는 14일 이뤄진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시진핑 “캐리 램 장관 신뢰” 홍콩 시위사태 문책론 불식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4일 상하이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상하이/신화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을 만나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했다. 앞서 대두됐던 램 장관에 대한 문책론을 완전히 불식한 셈이다.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6월에 시작된 이래 시 주석이 램 장관과 공식적으로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밤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를 방문한 램 장관을 만나 홍콩 정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중국 중앙정부는 램 장관을 높게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시위 사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열린 중국 공산당의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램 장관이 문책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램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만남을 통해 “중앙 정부가 램 장관과 홍콩 행정부를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다”며 램 장관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시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다섯 달째 이어지는 홍콩의 송환법 수정안 통과를 두고 “홍콩 특별행정구를 이끄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정세 안정 및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며 램 장관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시 주석과 램 장관의 회동을 기점으로 시위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선 기자 hsbun@

LG, 전국 초·중·고 공기청정기 1만100대 지원 완료 총 220억 규모...3년간 필터 교체·AS도 무상 제공기로

LG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433개 초·중·고교 등에 공기청정기 1만100대를 무상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3년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와 AS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당초 약 150억 원 계획에서 약 220억 원으로 늘었다.

LG는 3월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이어지던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1만대 무상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근까지 공기정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국의 168개 초

등학교, 124개 중학교, 91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도서관, 수련원 등 청소년 공공시설 등에 총 1만100대의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그동안 LG전자는 전국 학교에 보급할 공기청정기 생산을 위해 창원공장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기도 했다. 이번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로 가을철부터 난방과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G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주는 LG유플러스의 IoT(사물인터넷) 공기



LG가 지원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중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질 알리미 서비스와 공기청정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AI스피커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LG는 올해부터 전국 262개 모든 아동복지생활시설에도 공기청정기 3100대를 무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기술 제안 17팀에 2억6500만원

이현석·강성호 교수 최우수상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한 17개 팀에 상패와 총상금 2억6500만 원을 수여했다. <사진>

SK하이닉스는 4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2019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SK하이닉스 미래기술 연구원 김진국 담당을 비롯해 임직원, 공모전 수상자와 동료,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총 17개 팀에 상패와 총상금 2억 6500만 원을 수여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2명으로, 저온 성장 나노 다공 구조의



공정개발을 제안한 충북대학교 이현석 교수와 효율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안한 연세대학교 강성호 교수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4건, 장려상 6건, 열정·패기상은 5건이 선정되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지역경제정책관 김용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 백부근 △친환경운송연구본부장 김광수 △해양플랜트·에너지연구본부장 김현주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장 김선영 △해양시스템연구본부장 김시문 △경영지원본부장 오위영 △자율운행선박사업추진단장 김진 △기획부장 양준혁 △행정부장 김덕영 △정책협력부장 강성길 △감사부장 오홍준 △환경공학연구센터장 설한신 △해수에너지연구

센터장 문덕수 △삼해공학연구센터장 김진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장 김형우

◆오렌지라이프 ◇부서장 승진 △정보보호부 부장 권욱빈

부음

▲장현정 씨 별세, 안석호(SK C&C 현장경영실장) 씨 부인상, 안준영(다에) 씨 모친상 = 5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30분, 031-787-1500

▲권정남 씨 별세, 윤준현(전기회계정부장관) 씨 모친상 = 4일, 삼성서울병원 17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2-3410-3151

▲조정석 씨 별세, 이태영·경영·주영·선자

·미자·미순(대일텍스타일 사원)·홍자·홍임 씨 모친상, 오정열·노대용(대덕정밀 사장)·서해교·배영택 씨 장모상, 권난희·김미경·유연옥 씨 시모상 = 5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7일, 02-2290-9442

▲조장목 씨 별세, 조규영(에어서울 대표) 씨 부친상, 강득한·김동국 씨 장인상 = 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02-2227-7500

▲이옥순 씨 별세, 정승욱(세계일보 선임기자)·창욱(개인사업) 씨 모친상, 박중성(세마을금고 부부장) 씨 장모상 = 5일, 전남 목포장례식장 201호, 발인 7일 오전 7시, 061-242-4400

게시판

강신혁 교수, 신경외과학회 심보성학술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19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심보성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강신혁 교수는 논문을 통해 뇌수막종 악성화에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표적물질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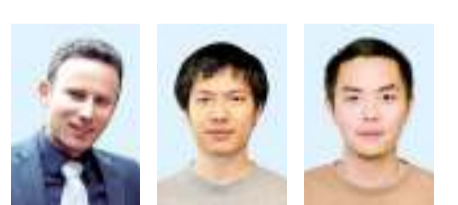


박용석 교수, 한국국제경영학회장에 선출

박용석 연세대 동서문 제연구원 원장(경영대학 교수)이 2일 중앙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2020년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젊은 물리학자상 발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젊은 물리학자상 수상자로 호주 시드니 공과대의 이고르 아로노비치 교수, 류승준 중국 북경대 교수, 허송 중국과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뛰어난 연구성과를 낸 아태 지역 젊은 물리학자에게 준다. 아로노비치 교수는 양자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연구에서 성과를 냈고, 류 교수와 허 교수는 각각 초저온 원자 연구와 양자장이론 이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스 도시국가 체제가 로마제국으로, 대영제국에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으로 바뀌는 패권국가 교체 과정은 인류사에 기념비적 '선의의 혁신 경쟁'의 역사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안정적 질서 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패권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앞가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강패국가'에 불과하다는 고백이다.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2% 아래로까지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여러 국내외 요인 중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첫 번째로 꼽힌다. 또 미중 무역전쟁은 자주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규정되곤 한다. 한편, 근자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무역 및 환율정책 등 대외 경제 정책은 미국이 과연 패권국가(Hegemon)로서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미국 내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여왔던 무역전쟁의 출발점은 '중국이 불공정무역을 통해 미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흑자구조를 쌓아왔다'는 의심이었다. 2018년 미국의 총상품 무역적자는 8913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중 대중 무역적자는 4192억 달러에 달했다. 대(對)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큰 이유를 중국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무역 정책 때문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보복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그 결과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2018년 3월 이래 미국의 대중국 무역

역 보복조치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11% 절하되었으나, 중국의 미국 이외 교역 상대국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2004년 이래 46% 절상되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중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정책은 없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악화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및 국방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만성적 낮은 저축률과 그에 따른 과잉소비의 결과로 보고 있다. 20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미국의 평균 저축률은 6.3%였으나, 2019년 저축률은 2.2%로 급락하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상대국을 통제하려던 트럼프의 의도가 오히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영향력을 빠르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제프리 프랭크 하버드대 교수의 진단이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국제교역의 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미국 달러화가 47%, 유로화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외환거래의 88%가 달러화

를 포함하고 있고 유로화를 포함한 외환거래는 32% 수준이다. 또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화를 외환보유액의 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로화는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기축통화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사실에 의조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해 오다가, 2020년 대선을 의식하면서 느닷없이 이란에 대한 달러화 거래 금지를 선언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스스로 달러화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다수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은 정책이 반복될 경우 국제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비중은 점차 줄어들면서, 영국 파운드화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묻지 마 분노' 덕분에 당선된 트럼프의 집권 기간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를 소유하게 되고, 하위 90%가 소유한 자산은

25% 미만이라는 통계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처럼 패권국가 교체 과정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라, 승자 독식의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그리스 도시국가 체제가 로마제국으로, 대영제국에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으로 바뀌는 패권국가 교체 과정은 인류사에 기념비적 '선의의 혁신 경쟁'의 역사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안정적 질서 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패권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앞가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강패국가(Bully Country)'에 불과하다는 고백이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패권국가들이 사라지고, 강패국가들만이 횡행하는 시절에,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경제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발톱, 즉 기술적 시장 지배력밖에 없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가 확인시켜주는 교훈이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중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P2P금융법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결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일종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 선진국에서도 P2P금융에 관여하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과 규제가 존재하는데, P2P금융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2005년 3월 영국에서 조파(Zop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용공여 허가를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모델이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안적인 금융으

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계량화한 신용평가 방식과 정보통신 발전으로 핀테크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기존의 재무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넘어서 금융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거래가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켓플레이스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안 금융은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20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금융 형태로 그 시장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팝펀딩, 머니옥션 등이 다자간 금융거래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관련된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변칙적인 운영을 해왔다. P2P업체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어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 플랫폼 회사와 대부업체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편법적인 관행으로 운영되었다. 그나마 많은 업체들이 부동산 관련 재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P2P금융을 이용하기도 하고,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P2P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와 차입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의 관행을 제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로써 P2P금융은 이제 새로운 금융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경직성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금융시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면서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신용등급제에서 불이익을 받던 중저신용자, 여성 등이 금융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채나 대부업 등을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던 차입자가 이전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의 포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P2P금융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핀테크를 이용하는 기업이 신용정보, 개인정보, 거래정보, SNS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 수요층을 만들어 내고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아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인 금융이 기존 금융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전한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

이투데이, 말투데이

"죽겠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우리도 힘들다."

국내 굴지의 제과업체 관계자는 최근 업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품 가격이 싸고 중요도가 낮은 제품 특성상 과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유통채널의 중심은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고 출산율도 떨어져 주소비층인 아이들마저 줄고 있으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렇다면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거냐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제3자의 주제 넘는 소리 같아서 하지 않았다.

기지사설



안경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오리온의 '물 시장' 진출이 반가운 이유

사회적 변화의 파고 속에서 한우물만 파온 기업의 고민을 보면서 20년 전 두산그룹이 연상됐다.

1990년대 후반 두산그룹은 주류, 식음료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소비재 회사였다. 이 회사는 IMF 전후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간판 계열사인 오비맥주 매각을 결정했

고, 이내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대우종합기계(두산인프라코어)·밥캣 등을 인수하며 '중공업그룹'으로 탈바꿈했다.

"그룹 모태인 주류 사업 매각은 안 된다"던 임직원들에게 "두산이라는 이름이 다음 세대로 가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業)은 중요하지 않다"고 일갈했던 고(故) 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은 오늘

날 두산그룹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과업체인 오리온의 물 시장 진출 소식은 반갑게 들린다.

오리온은 이달 프리미엄 미네랄 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를 출시한다. 국내 시장의 경영 악화를 타개할 새로운 카드로 '물' 사업을 꺼내든 것이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등으로 오랜 기간 중국에서 다져놓은 영업망과 '제주'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물 시장은 2020년 3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이 계속 제과업체로만 남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두산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찰스 다우 명언
"대중의 심리는 약세든 강세든 일단 명확한 성향을 띠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미국 언론인이자 시장분석가. 1882년 에드워드 존슨, 찰스 버그스트레서와 함께 다우존스를 설립하고 '다우존스지수'를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을 만든 인물. 오늘은 그의 생일. 1851~1902.

☆ 고사성어 /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 춘추전국시대에 원숭이를 많이 기른 송(宋)나라 저공(狙公)이 먹이가 부족하자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프 못 견디다고 화를 냈다.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그들이 좋아하였다는 일화는 열자(列子) 황제편(黃帝篇)에 나온다. 모두 7개를 받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도 4개를 먼저 받는다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된 원숭이들의 불만을 저공은 무마할 수 있었다.

☆ 시사상식/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시중의 여유 자금을 공공투자로 연결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기숙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확대했다.

☆ 우리말 유래 / 골백반
'골'은 만(萬)을 뜻하는 토박이말. 백반을 다시 만 번이나 되풀이한다는 뜻으로 '매우 여러 번'을 과장되게 한 표현이다.

☆ 유머 / 남편은 신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질문에 여인은 "남편을 신처럼 여기죠"라고 대답했다. 여인의 보충 설명. "수입의 90%는 내가 갖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쓰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단 1초, 파이낸셜 노마드 승부가 갈린다

2019년이 어느덧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이 올해의 뉴스로 부각될 듯싶다. 금융이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사기성 불안전 판매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덮을 이슈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한 연결고리 '신뢰'가 깨졌다. 신뢰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은 회사의 크기, 역사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객이 손실을 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파이낸셜 노마드(Financial Nomad)'가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났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0.1%포인트라도 이자를 더 주는 예금에 가입하려 여러 은행을 찾아 돌아다니는 고객이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데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이 수신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고금리를 좇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 낯설지 않게 보았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파이낸셜 노마드. 개인 간 거래(P2P) 투자상품을 대안으로 택하는 등 젊은 세대에서 더욱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일까. 시중은행에서 20대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세다. 월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활성 고객'에서도 20대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낮아지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기 쉬운 데다 금융상품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정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판예금 1초 완판이란 총성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019년 '신(新)파이낸셜 노마드' 유지전이 시작됐다.

은행 간 벽을 허무는 '오픈뱅킹' 또한 파이낸셜 노마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 앱 하나로 여러 은행에 분산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실상 '주거래 은행'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다. 타행에 통한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누구도 경합하지 못한 영역이다. 은행들이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금리, 부가 서비스 혜택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를 옮겨 다니는 고객 쟁탈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불어닥친 디지털 패러다임의 큰 파고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물줄기는 가장 먼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앞세운 금융회사만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2019년 '단 1초'의 화두가 내년에 어떠한 결과를 양상할지 주목된다.

acw@

사설

기업 수익성·안정성 악화, 3곳 중 1곳 '좀비기업'

작년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2017년보다 더 나빠지고, 기업 3곳 중 1곳은 돈을 벌며 대출이자도 못 갚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난 결과다. 한은의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상장사와 외부감사대상 기업, 실적공개 의무가 없는 비감사대상 기업까지 포함한 69만2726곳을 조사한 통계다.

자료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비중은 35.2%에 달했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져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다. 이 비중은 2016년 31.8%, 2017년 32.3%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이면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적자 상태인 기업도 2016년 27.0%, 2017년 27.6%, 작년 29.5%로 급증했다.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기업체질이 악화한 탓이다. 매출과 자산증가율, 영업이익률이 큰 폭 떨어졌다. 조사대상 기업의 작년 매출액증가율은 4.0%에 그쳐 2017년 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제조업이 9.0%에서 4.0%로 줄었는데, 글로벌 수요 감퇴로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자·영상·통신장비 부문 수출과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비제조업도 건

설 및 도소매 업종 부진으로 9.3%에서 4.0%로 급락했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에 따른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7년 6.1%에서 2018년 5.6%로 하락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매출액과 함께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자산증가율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설비투자가 자산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자산증가율은 2016년 6.3%에서 2017년 7.6%로 올랐다가, 작년 5.8%로 뒷걸음쳤다. 제조업의 경우 6.5%에서 5.1%로 둔화했다.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한다.

앞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힘들다. 11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이 반등할 기미가 없는 데다, 민간소비와 투자도 바닥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재정을 쏟아붓는 것 말고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계속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체감하는 규제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가 쪼그라드는 이유다. 기업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와 고용이 줄고 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이다. 나아가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기업 도산이 이어지는 사태가 올 경우 금융혼란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유미의 고공비행



산업부 차장

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

2010년 출범한 티웨이항공도 3년간 적자에 시달렸고, 7년이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자본잠식을 털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LCC의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한 이유는 항공산업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이익을 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게다가 초반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신생 LCC들은 거점 지역 수요가 바닥을 친다 해도 한동안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뻥세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토부는 3월 LCC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후보 3곳(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에 모조리 신규 항공면허를 발급해주며 항공업계를 놀라게 했다.

국토부가 업계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한 결정이라는 비난까지 흘러나왔다. 물론 예비 LCC 입장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일이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플라이강원은 당장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첫 취항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곳도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다. 10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선배 LCC들조차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익을 내며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 10여 년간 6개까지 늘어난 국내 LCC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올 들어 줄줄이 적자까지 기록하고 있는 판국에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게다가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파산 등으로 LCC 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 '슬롯' 확보는 과연 가능할까. 슬롯은 항공편이 운항 허가를 받은 시간대로 아무리 사업면허를 받아 항공기를 도입하고 운수권까지 확보한다 해도 슬롯이 없으면 비행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다. 특히 인천공항은 오래전부터 슬롯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제주항공이 무안을 거점으로 삼은 것도 슬롯 확보를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오죽하면 한 항공업계 관계자가 "예비 LCC 모두 첫 취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 과연 사업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라며 "상상 초월의, 정말 재미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재미난'은 반어법이다. jscs508@

세무, 특! 남겨진 이들을 위한 생전 상속세 준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사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인데 과세 형평과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에 그 과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과 시점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속인들은 근친의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실 앞에서 세금을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도덕적인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미리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준비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과 상속세 부담이라는 상속인의 이중고를 피할 수 있게 하므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상속세 절세

플랜은 사회통념상 상속인이 미리 실행하기 어렵지만 피상속인의 죽음 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상속인, 즉 부모가 생전에 자녀를 위해 계획하는 것이 유족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대상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피상속인이 생전 기간에 걸쳐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미리 이전해 놓는 방법을 통해서 일시에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납세자금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피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 둔다면, 사망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금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범접할 수 없는 1등의 위대한 진화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온 삼성 TV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2004년
세계 판매량
최대 스테이션
브로드 TV

2009년
SMART TV

2013년
Curved
OLED TV

2014년
curved
UHD TV

2015년
SUHDTV™

2017년
QLED 4K

2019년
QLED 8K

세계 최초 퀴라블톤 100% TV
* 독일 VDE 퀴라블톤 테스트 인증 기준 (2019년 3월)

세계 최초 QLED 8K,
8K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는 준비된 8K TV

1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TV는 역시 삼성
2006~2018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IHS Markit 기준



QLED 8K